KOTRA자료 20-108



2020 국별 진출전략

수단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3

1. 개요 ····· 3
   가. 시장 전망 ····· 3
   나. 주요 경제지표 ·····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
   가. 민군합동 과도정부 안정화 여부 ····· 4
   나.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논의 ····· 5
   다. 남수단 평화협정 이행 및 석유생산 재개 ····· 6
   라. 정부의 산업화, 수출·투자유치 확대 정책 ····· 7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8
   가. 정치 환경 ····· 8
   나. 경제 환경 ····· 10
   다. 산업 환경 ····· 11
   라. 정책·규제 환경 ····· 13
2. 시장 분석 ····· 14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4
   나. 교역 ····· 16
   다. 투자진출 및(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 20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 22
   가. 교역 ····· 22
   나. 투자진출/프로젝트 ····· 25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26

Ⅲ. 진출전략 ····· 28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28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29
3. 한-수단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35
4. 진출 시 유의사항 ····· 39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 40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42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43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44

부 록

對수단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 45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과도정부 안착,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 시 경기 급반등 예상

○ 2019년 30년 독재정권 축출,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으로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 확산
- 남수단 독립(2011)에 따른 유전 상실, 1990년대 이후 부과된 미국발 제재로 외화부족 및 경제위기 심화, 2018, 201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후 2020년 반등 예상
- 2018년 12월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반정부시위–국가 비상사태 선포–쿠데타–유혈진압에 이어 군과도위–야권연대 간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 안정국면 돌입

○ 과도정부 안착 시 경기 회복 가능, 미(美) 제재 해제로 연결 시 경기 급반등 예상
- 2019년 9월 출범한 민군합동 과도정부 안착 시 2020년 이후 경기 회복 가능
- 과도정부 안착, 민주화 진전 시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1993~현재) 해제로 연결 기대

나. 주요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추정치)	2020년 (전망치)
1. 명목 GDP	억 달러	822	967	956	1,231	308	290	292
2. 1인당 명목 GDP	달러	1,629	1,715	1,408	1,123	791	795	-
3. 실질GDP성장률	%	2.7	4.9	4.7	4.3	-2.3	-2.5	1.5
4. 총고정투자증가율	%	0.0	4.5	3.7	3.0	-2.9	-1.8	0.6
5. 인 구	백만 명	37	38	40	41	41	42	43
6. 환율(연평균)	현지국/U$	5.97	6.09	6.59	6.68	47.50	60	71
7. 소비자물가상승률	%	25.7	12.6	30.2	25.2	72.9	47.4	16.6
8. 총수출	억 달러	44.5	31.7	30.9	41.0	34.9	29.1	31.6
9.(對韓 수출)	백만 달러	31	18	12	22	58	-	-
10. 총수입	억 달러	81.1	85.6	74.8	82.2	70.7	66.0	66.7
11.(對韓 수입)	백만 달러	141	163	149	164	127	-	-
12. 무 역 수 지	억 달러	△36.5	△53.9	△43.9	△41.2	△35.8	△36.8	△35.1
13. 경 상 수 지	억 달러	△35	△55	△42	△46	△47	△45	△45
14. 대외 부채	억 달러	468	498	527	561	635	667	679
15. 외환보유고	억 달러	1.8	1.7	2.0	2.0	1.1	3.9	3.2
16. 실 업 률	%	19.8	21.6	20.6	19.6	19.5	19.6	-
17. 외국인투자유치	억 달러	13	17	11	11	-	-	-

주1 : 환율은 연말 공식환율 기준(시장환율은 공식환율과 큰 차이)
주2 : AfDB(연차통계북 2018)에 따르면 수단 2017년 기준 GDP(명목)는 $1,294억 달러로 나이지리아 $3,764억 달러, 남아공 $3,489억 에 이어 SSA 3위, 인구는 나이지리아, 콩고, 탄자니아, 남아공, 케냐에 이어 SSA 7위권
자료 : 1~8, 10, 12~16 : EIU Country Report(2019년 9월)&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8, 10 : 한국 관세청(2019년 9월)/17 : UNCTAD(World Investment Report 2018년 6월)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019년 9월 새롭게 출범한 민군합동 과도정부 안정화 여부, 그와 연계된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여부가 최대 관건
- 양대 이슈 해결 시 수단 민주화 및 경제발전 급진전 가능

◈ 남수단 평화협정 이행 및 석유 생산 정상화, 산업화 정책 성공여부도 중요

가. 민군합동 과도정부 안정화 여부

2018년 12월 이후 정국불안 거쳐 국제사회 지지 속에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

○ 2019년 1~7월간 극심한 정국 불안 거쳐 7월 군부-야권연대 간 민군합동 과도정부 설립 및 운영 방안에 합의 서명, 9월 과도정부 출범

– 2018년 12월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반정부시위 확산-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2월) – 군부 쿠데타 발생 및 30년간 독재정권 유지해온 前 Bashir 대통령 축출 - 군부의 시위대 유혈진압(6월)으로 2019년 상반기 중 정국불안 지속

– 2019년 7월 국제사회 중재속에 군과도위-야권연대 측 향후 3년간 민군합동 과도정부 운영 방안에 합의 서명

○ 2019년 9월, 총리 등 18명 장관급 임명, 군과도위-야권연대 간 합의 골자는 아래와 같음

– △국가대표 의사결정기구(soverign council)는 15명 위원을 민군합의하에 임명, △총리는 야권연대 측이 임명, △18명의 장관급 임명(국방, 내무장관은 군 추천, 나머지 장관은 야권 추천, 여성 장관 4명 포함), △3년간 과도체제 운영 후 선거 실시

과도정부 안착 시 수단 경제 반등 기대

○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수단 정국 빠르게 안정화 되는 상황

– 30년간 장기독재, 무능한 정권으로 비난받던 舊 Bashir 정권 축출, 새 정부 출범 및 민주화,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 확산

– 단, 舊 정권 잔당세력들의 반발, 지방 군벌세력과 갈등 가능성, 외화 부족으로 촉발된 경제침체 상황 등은 극복해야 할 잠재불안 요인으로 작용

○ 과도정부 안착 및 민주화 진전 시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로 연결 기대

– 미국은 수단 정부에 인권개선, 종교 자유화 등을 요구 중으로 민주화 진전 시 테러지원국 해제 및 서방으로부터의 금융지원에 유리하게 작용 예상

나.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논의

미국은 대(對)수단 경제제재(1997~2017년 10월) 해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테러지원국 지정(1993~현재)을 해제하지 않은 제재 효과 지속 중

○ 경제제재 해제(2017년 10월)로 명시적인 무역·투자·금융 거래 제한 및 자산동결조치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해제 효과 미미

* 경제제재 부과 사유 : 다르푸르 분쟁 및 학살, 테러 단체 지원, 종교탄압, 인권유린 혐의

– 제재 해제로 외환·금융거래 재개에 따른 교역 활성화, 수단 내 오일·광물·농업자원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무역투자 증대 효과 미발현 상태

– 오히려 외화공급 부족 상황에 달러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환율, 물가 급등으로 비즈니스 환경 악화, 2019년 9월 현재까지 외화부족을 이유로 다양한 수입 통제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 지속

– 2018년 10월 기준, 아직 국제 금융기관을 통한 수단 관련 외환 송금(in & out)이 여전히 제약을 받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수단발 L/C 미인정 등으로 무역결제 방식이 DA/CAD 등으로 제한받고 있음, 이로 인해 두바이 등 제3국 소재 협력사를 통해 자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수입대금 결제방식의 주를 이루고 있음

○ 美 경제제재 해제로 당초 기대했던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수단정부의 경제개발정책 효과 발현 수반 필요

– 수단은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수단, 시리아, 북한, 이란 4개국에 불과

–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서방 및 국제기구에 의한 차관, 부채 탕감 등이 어려워 외환 조달, 인프라 개발, 파이낸싱, 외국인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중

– 수단 정부는 미국에 대해 다각도로 테러지원국 지위 해제를 요구해 왔으나 경제제재와 달리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미(美) 의회의 동의 필요 사안으로 민감한 정치안보 이슈가 연계돼있는 만큼 단시일 내 해제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30년 독재정권 축출 및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기대 상승

○ 과도정부 출범 과정에서 군과도위–야권연대 간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이를 환영했던 만큼, 과도정부 출범이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기대

○ 한편, 2018년 11월 미(美)–수단 양측은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을 위한 6개 전제조건에 합의한 바 있어 과도정부의 하기사항 이행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 예상

* 미(美)의 6개 핵심 요구 사항 : ① 대(對)테러 방지 협력강화, ② 종교, 언론 자유를 포함한 인권 개선, ③ (분쟁지역 등에 대한)인도적 접근 강화, ④ 내부 적대행위 중단, 평화 정착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⑤ 테러 관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소명, ⑥ 북한 관련 UN 안보리 제재 준수

다. 남수단 평화협정 이행 및 석유생산 재개

남수단 평화협정 이행 본격화 시 수단 경제에 호조 요인으로 작용

○ 남수단 평화협정 체결(2018년 9월) 후 2019년 9월 현재까지 대체로 평화 상태 유지

– 남수단 정부-반군 단체 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이 2018년 9월 12일 아디스아바바 IGAD(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 회담 직후 최종 체결

* 서명 당사자는 Kiir 대통령이 이끄는 남수단 정부, Machar가 이끄는 SPLM-IO 등 주요 반군 단체가 모두 참여

○ 협정상 합의 골자는 △적대행위 중단, △2015 평화협정 미이행건인 유전 재가동 및 치안확보, △과도 연합정부 구성, △포로 석방 등임. 기타 협정 체결 전 주요 논점 처리에 대한 합의 방안은 아래와 같음

* 반군 리더인 Machar는 부통령 지위 회복, 주의 경계와 숫자(32개vs10개)는 국민투표로 결정, 헌법제정은 관련 위원회가 초안 작성, IGAD 평화유지군 파견은 미수용

2020년 이후 남수단 평화협정에 따른 남수단 내 석유개발 본격화, 수단-남수단 간 국경무역 활성화 시 양국 경제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 기대

○ 남수단 평화협정이 수단에 중요한 이유는 남수단 평화 정착 시 남수단 내 석유 생산 재개로 수단을 관통하는 송유관 통한 석유 수출 시 송유관 사용료 수익, 석유 수입난 완화, 분리독립 당시 보상금(30억 달러 중 12억 달러 미수) 청구 등이 가능하기 때문

○ 수단, 남수단의 유전 재가동 및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표명, 수단-남수단 석유부 장관은 남수단 중부 5광구 유전 재개발 협력 MOU 체결(2018년 10월)

– 실제 평화협정 체결 후 일부 유전 가동 재개, 2018년 남수단 석유 생산량은 13만 배럴/일로 2020년까지 30만 배럴/일로 늘린다는 목표 제시

▶ 남-북 수단 전체의 석유 매장량은 67억 배럴로 아프리카 5위 수준. 수단은 2011년까지 수출의 90%, 정부 재정의 60%, 외국인 투자의 70%를 석유에 의존할 정도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으나, 2011년 남수단의 분리독립 결정으로 전체 유전 지대의 75%를 상실하며 재정,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

* 수단은 통일 국가였으나 남수단(기독교)-수단(이슬람)간 종교, 석유 자원을 둘러싼 분쟁 끝에 국민투표를 통해 남수단의 분리독립 결정(2011년)

▶ 남수단 분리 조건 중 하나로 남수단 석유 수출 시, 수단 송유관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으나 남수단 내전, 저유가로 인해 석유개발이 부진하여 남수단산 석유 수출에 따른 송유관 사용료 수입도 저조한 상태였음.(2018년 9월 송유관 사용료 USD 14/배럴 합의)

* 남수단 석유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단 내 송유관을 거쳐 북동부 홍해에 위치한 Port Sudan까지 운송 필요

라. 정부의 산업화, 수출·투자유치 확대 정책

과도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 점검, 재가동 기대

○ 남수단 독립과 유전 상실(기존 보유유전의 75% 상실)에 따른 석유 의존도 완화와 경제개발을 위해 수단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2019) 시행

– 그러나 재정 및 외환부족, 정국불안, 미국발 제재로 인해 개발정책 효과 미미

– 이에 경제개발은 비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수혜(중국, 아랍국가로부터), 농업, 광업에 한정된 (사우디 등 아랍국) 외국인 투자유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골자 : 정부지출 축소, 수입억제, 수출 다변화, 민간경제 활성화

* 5개년 계획 구성은 경제, 상품, 서비스, 인프라, 사회복지, 인적 자원 개발 등으로 구성

○ 수단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 이행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입대체, 광산업(mining) 및 농축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음

– 제조업 육성 분야 : 자동차, 기계조립, 태양광, 관개 및 농업장비, 식음료, 제약 제시

– 광업, 농축산 산업 육성 : 금, 참깨, 검아라빅, 가축류 수출 확대, 석유개발 추진

– 육성 방법 : 원부자재 수입관세 감면, 대출, 인프라, ODA 자금 우선 지원 등

○ 수단 과도정부, 2019년 11월 중 경제개혁(안) 발표 예정

– 수단 과도정부, 빵, 연료, 전기, 의약품 부족 및 물가 급등 등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9개월에 걸친 경제개혁, 구제 계획(Economic Rescue Plan) 발표 예정

– 신임 Elbadawi 재무장관, 11월 발표될 동 계획에는 정부 예산 및 지출 조정, 은행 구조조정, 물가 통제, 세재 개편, 부패 척결, 내년 6월까지 공식, 비공식 환율 일원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단, 2020년 6월까지 빵, 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유지 예정), Elbadawi 재무장관은 수단 경제활동의 60%에 면세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며 세재 개편 필요성을 언급

– 동 계획 이행 위해 WB에 20억 달러 규모 자금지원 요청 예정, Elbadawi 재무장관은 수단 경제 회생 위해 향후 2년간 80억 달러 외국지원, 추가적인 수단 SDG 가치하락 방어 위해 20억 달러 외환 보유고가 필요하다고 언급

WTO 가입 추진

○ 수단은 아직까지 WTO 미가입국으로 국제무역규범을 따르지 않는 관행 다수 존재, 과도정부 출범 및 미국발 제재해제 시 WTO 가입에 유리하게 작용 기대

– 높은 관세율, 인증 및 통관제도의 불투명성 등 무역장벽 존재

– 수단은 2013년에 WTO 가입 공식 신청, 경제개혁, 수출입 자유화 등 12개 분야에서 수단이 이미 WTO 가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정치경제, 법체계 시스템 미비에 비춰볼 때 가입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 예상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정치) 2019년 30년 독재정권 붕괴 및 민군합동 과도정부 설립으로 급변
◈(경제) 과도정부 안착 시 국내외 투자 활성화, 수단 경제 급반등 예상
◈(산업) 농축산광업 현대화, 제조업 육성 등 산업화 정책 재가동 기대
◈(정책) 외화부족으로 엄격한 외환 관리,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관건

가. 정치 환경

2019년 9월,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

○ 경제위기에 이은 30년 군부 독재정권 축출,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과도정부 출범

– 지속된 경제위기로 2018년 12월 대규모 반정부시위 발발 이후, 국가 비상사태 선포(2019년 2월), 쿠데타 발발 및 군과도위 정권 장악(2019년 4월), 민정이양을 요구하는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대량 유혈사태 발발(2019년 6월) 등 정국 요동

– 수단 경제는 2000년대 석유생산에 힘입어 호황 기록, 그러나 △2011년 남수단 독립 시 수단 보유 유전의 75%가 남수단에 귀속(석유 수출 급감), △미국발 경제제재(1997~2017년), 테러지원국 지정(1993년~현재)에 따른 국제사회 지원 및 투자 저조, △30년간 독재(부패무능)정권 지속 탓에 극심한 외화난 속에 경제위기 심화

* 2018년 물가 상승률 73%(비공식 100% 이상, 베네주엘라 이어 세계 2위), 시장환율은 1년 전 대비 2.5배 상승, 빵, 석유 등 생필품 부족, 외화 및 현지화 유동성 부족으로 국민불만 가중

○ 수차례 위기 딛고 국제사회 지원, 민중항쟁 통해 민군합동 과도체제 운영 합의

– AU, 서방 등 지원, 군부에 대한 압박 속에 수단 야권연대–군과도위 측 향후 39개월간 민군합동 과도정부 운영안 합의(2019년 8월 17일 최종 서명)

– 수단 국민과 국제사회는 일제히 8월 17일 합의를 환영, 일부에서는 '아프리카 민주항쟁의 모범사례', '새로운 시대의 서막'으로 평가

– 야권연대–군과도위 간 주요 합의 및 서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향후 일정 : 정식 서명식 개최(8월 17일), 향후 민군대표자회의(ruling soverign council) 위원 지명, 총리 임명, 내각 구성, 민군합동 과도정부 체제 출범(9월 중)

* 정식 서명식 개최 후 39개월간 민군합동 과도정부 체제 운영, 이후 선거 통한 민주 정부 출범

* 입법기관은 서명식후 90일 내 구성, 300명 이하, 이 중 40%는 여성에 할당, 총 의석의 67%는 야권연대에, 나머지 33%는 과거 바시르 정권을 제외한 여타 정당에 할당

○ 과도정부 기간 중 크고 작은 잠재적 불안 요인이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 원활한 과도체제 운영 및 선거 통한 민주 정부 설립 시 수단 경제 급반등 기대

– 과도체제 및 민간주도 정부 성공 시 미국발 테러지원국 해제, 서방 등 국제사회의 지원 및 투자 통해 수단 경제 급반등 가능할 것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 지정 상태 지속

○ 수단은 과거 다르푸르 등에서 발생한 내전에서 학살, 인근국 테러 지원 혐의로 인해 미국에 의해 오랫동안 경제제재 및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상태

– 2017년 10월, 20년간 지속된 미국발 경제제재가 전격 해제되었으나 테러지원국 지정(1993년~현재) 조치는 여전히 유지

– 이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무역투자, 금융거래 자유화라는 경제제재 해제 효과는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채 2018~2019년 수단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

○ 수단정부는 미국과의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로 2018년 11월 양국은 지정 해제를 위한 협상 프레임워크에 합의

* 미(美) 측 6개 핵심 요구 사항 : ① 대(對)테러 방지 협력강화, ② 종교, 언론 자유를 포함한 인권 개선, ③ (분쟁지역 등에 대한)인도적 접근 강화, ④ 내부 적대행위 중단, 평화 정착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⑤ 테러 관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소명, ⑥ 북한 관련 UN 안보리 제재 준수

○ 2019년 상반기 수단 위기에 이은 9월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과 국제사회의 지지표명은 미(美) 측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의 핵심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

* 9월 과도정부 출범 후 프랑스, 사우디 등이 미국에 대해 대(對)수단 테러지원국 해제 지지 의사 표명

지방 군벌(과거 반군) 세력과 갈등관리 필요

○ 30년 독재 舊 Bashir 정권 축출로 구정권과 갈등을 겪어온 다르푸르, 청나일, 코르도판 지방 군벌 세력과 갈등도 완화된 상태, 그러나 과도정부 참여 지분, 인도적 지원품 배분 문제 등과 관련된 갈등 관리 필요

– 일부 지방 반군(군벌) 세력은 2019년 8월 17일 야권연대-군과도위 협정에도 서명 거부

– 이후 수단 과도정부 대표-반군 대표들이 9월 11일 Juba에 모인 가운데 10월부터 약 두 달간 평화협상 진행키로 합의 및 가서명

* 주요 분쟁지역은 다르푸르(JEM 활동지), 블루나일, 남코르도판 주(SPLM-N 활동지)

– 오랜기간 구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지방군벌과 평화정착은 미국이 요구하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요건 중 하나이자 과도정부 성공 요건 중 하나

○ 이외 2018년 9월 남수단의 정부-반군 간 체결된 평화협정 역시 많은 취약점 내포, 실제 성공적으로 이행될지 여부는 주목 필요

나. 경제 환경

2015년 4.5% 경제성장 기록 후 둔화세, 2018~2019년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 후 하락세를 겪던 수단 경제는 기저효과로 2014 ~2016년 소폭 상승, 이후 외화부족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로 2018, 2019년 마이너스 성장 예상

– 남수단 독립 시 유전 상실(75%) 이후 금, 동식물을 제외한 마땅한 수출대체재가 없는 가운데 외화부족으로 촉발된 경제 악화 지속

– 2017년 10월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 지위가 지속된 탓에 정상적인 금융거래, 서방으로부터의 차관 및 부채 탕감 불가능 속에 2018~2019년 기간 중 환율, 물가 급등 심화

* $1 대비 현지화(SDG) 환율 변화(시장환율 기준)
: 10(2015) → 15(2016) → 25(2017.10) → 30(2017.11) → 35(2017.12) → 35(2018.1) → 43(2018.2) → 62(2019.9)

* 소비자물가상승률 : 34%(2013) → 26%(2014) → 13%(2015) → 30%(2016) → 25%(2017) → 73%(2018)

– 대외부채 규모 635억 달러(IMF 2018년 말 기준)로 GDP의 60%대, 그러나 이는 공식환율 기준이며,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GDP 규모를 상회해 재정 압박, 이 중 80% 정도가 연체 상태로 추가 자금 조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중

○ 2017~2018년 경제 상황 악화는 결국 30년 군부독재 정권의 붕괴로 이어짐

– 환율, 물가 폭등에 이은 빵, 석유, 현금 파동은 국민 불만 가중, 2018년 12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진 가운데 2019년 4월 쿠데타로 舊 정권 축출

과도정부 안착 시 2020년 수단 경제 반등 예상

○ EIU, IMF 등은 과도정부 안착을 전제로 2020년 수단 경제성장률 1.5% 전망

– 국내외 언론 공통으로 2019년 9월 출범한 과도정부 성공 여부를 결정할 최우선 과제 경제 회복을 선택

– 과도정부도 UN 개발기구 출신 수상, WB 경제학자 출신 인사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고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는 상황

○ 과도정부 안착 시 국제사회 지원, 나아가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기대

– 미국발 테러지원국 해제 시 서방으로부터의 차관, 자금지원 및 부채탕감 가능

– 사우디, UAE는 수단 과도정부에 대한 지원을 약속, 미국, EU 등도 지원 확대 의사 표명

* 사우디, UAE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30억 달러 규모 공동 원조 계획 발표, 5억 달러는 현금, 나머지는 현물 지원(현금 지원분 5억 달러 기 예치 완료)

다. 산업 환경

산업 구조

○ CIA Factbook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단의 산업별 GDP 구성은 농축산업 39.6%, 산업(제조 및 광산업 포함) 2.6%, 서비스 57.8%로 구성

– 보다 세분화된 AfDB 자료는 농업 비중 31%, 제조업 비중 9.8%로 집계

전체 GDP 대비 산업별 비중

구 분	2009년(%)	2013년(%)	2017년(%)
농림축산	32.6	34.5	30.8
광산업(mining)	11.5	5.1	6.3
제 조	8.5	9.0	9.8
전기, 가스, 수도	0.6	0.9	0.3
건 설	4.4	4.8	3.5
유통 및 요식업	15.0	16.8	16.2
교통, 통신	10.3	13.6	13.3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	9.1	8.0	12.4
공공서비스, 국방	6.8	6.4	5.0
기 타	1.1	0.9	2.3
총 계	100	100	100

자료 : AfDB, 2019년 9월 기준

○ 수단은 농업 종사 인력이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산업인프라와 자본, 숙련노동력이 부족하여 설탕, 시멘트, 자동차 및 가전 조립, 기초 플라스틱 생산 외 뚜렷한 산업기반이 부족한 상태임

우리기업의 수출 활동과 관련된 수단 내 주요 산업별 동향은 아래와 같음

주요 산업별 동향

산 업	산업별 동향
제 조	• 공산품의 90% 내외는 수입에 의존, 자체 생산품은 설탕, 시멘트, 제약(복제약), 기초 플라스틱, 자동차 조립 등에 한정, 정부는 제조 분야 외국인 투자 희망 * GIAD(수단 최대 공기업 중 하나)는 현대차, DAL 그룹은 기아차 등과 손잡고 CKD, DKD 방식의 승용차, SUV 조립생산 중 • 수단 공기업 및 대기업 자동차 조립, 화학 플라스틱, 육가공, 섬유, 타이어, 의료 분야 제조업 신규 또는 확장 진출 수요 포착(우리 기계설비, 중간재 기업과 협력 희망)
농축산	• 수단 대표산업으로 농업 기계화에 관심, 농기계, 비료 등 수요 증가세 • 사우디, UAE 등 중동계 자본 농업 투자, 수단정부도 증액 투자 유치 중
광산업	• 수단은 남아공, 나이지리아에 이은 아프리카 3위 금 생산국, 금은 수단 전체 수출의 1/3 차지, 석유 대체 수입원으로 광산업 수출산업화에 역점 • Mining 관련 장비, 제련용 화학제품 수요 지속 증가세

유통 (수출입포함)	• 수도 카르툼(인구 8백만 명)으로의 도시화 진전, 소비 분화로 패턴 양극화 • 카르툼 시내 하이퍼마켓 성행, 유통 부족 상태로 소비재 수요 증가세
건설, 인프라	• 미(美) 테러지원국 지정, 2019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경제위기 및 정국불안으로 인해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제약 • 과도정부 안착 시 中·중동·유럽·국제기구(UN, AFDB, WB 등) 지원 프로젝트 확대 기대

○ (제조) 미국발 제재, 인프라 및 연관산업 미비로 제조업 발달 미약

– 과거 설탕, 시멘트 생산과 함께 섬유, 플라스틱, 석유화학 등이 핵심이었으나 면화생산 감소 등에 기인한 섬유제조업 쇠퇴, 남수단 독립, 유전 상실로 석유화학, 플라스틱 산업도 위축된 상태(3개 정유공장 중 현재는 1개만 가동 중)

– 기초 플라스틱, 복제약 제조, 주사기 등 의료기기 일부 생산, 자동차조립 등이 수단 제조업 명맥을 잇고 있으나 본격적인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미(美) 제재해제, 외국인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 및 연관산업 발전이 필요

– 정부의 제조업 육성책에 힘입어 수단 공기업, 일부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신규 및 확대 진출 희망, 특히 이들은 한국 제조업 우수성과 경제발전 과정을 잘 인지하고 있어 한국 기계설비, 플랜트, 중간재 등 도입 희망

* 수단 제조업 신규(확대) 진출 희망 분야 : 자동차 및 가전 조립, 제약, 의료기기 제조, 섬유, 타이어, 육가공, 플라스틱 제조 등

○ **(광산업/오일&가스)** 2019년 기준 수단 내 석유 생산량은 9만 배럴/일로 수단 내수에도 못 미치는 규모, 대부분 내수용으로 사용되어 수출 비중은 미미

* 수단은 1999년부터 석유생산 개시, 2006년 말 하루 평균 석유생산 50만 배럴 이상, 2006~2011년 하루 평균 생산량 47만 배럴에 달했으나, 남수단 독립 직후 2011년 7월 10.6만 배럴로 급감

* 1999~2011년이 전체 수출의 95%를 석유가 차지했으며, 동 10년간이 수단 경제의 부흥기였으나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으로 전체 유전의 75% 상실

* 수단산 일평균 원유생산 2016년 104,000b/d에서 2019년 120,000b/d로 상승 기대

– 남수단 독립 후 석유 수출 대체 위해 금 등 비석유 광물자원 개발에 역점, 2017년 금 생산은 105톤으로 첫 100톤 돌파, 수단 광업부는 비공식 생산분까지 합치면 250여 톤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 2018년 기준 17개 외국기업을 포함 150여 개 광산업 기업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국인 투자 저조, 아직 광업 전체는 영세기업, 전통방식에 의존

○ **(농축산)** 수단은 아랍권 경작 농지의 30%를 차지하는 아랍권 최대 농지 보유 국가, 수단 입장에서도 GDP의 30%,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임

* 수단 내 경작 가능 면적은 2억 acre, 이중 실제 경작면적은 4천만 acre, 이 중 90%는 천수답, 수리답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 반면 농산물 전체 생산의 50% 정도는 이 수리답에서 생산

* 주요농작물은 수수, 밀, 면화, 땅콩, 기장, 참깨, 검아라빅, 사탕수수 등이며, 최근 면화생산 증가세

– 수단 내 가축 사육두수도 1.1억 마리로 아랍권 최대 규모, 축산업은 전체 농축산업의 1/3 차지, 그러나 여전히 아랍권 전체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방목지 면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국 전체의 40%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유전 상실 후 농업은 경작지 확대, 정부의 수출산업화 정책에 힘입어 수단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 수행, 농축산 장비, 사료, 비료 시장 성장세 기대

라. 정책·규제 환경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2019)과 과도정부의 경제개혁, 구제 계획(Economic Rescue Plan)

○ 긴축재정, 수입억제 및 수출산업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편 추진

– 광물, 농축산 자원의 수출산업화, 제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가 골자

* 광업, 농축산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금, 참깨, 검아라빅, 가축류 수출 확대 추진

* 육성 분야에 대한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대출 우대, 인프라 지원, ODA 자금 우선 지원 등

– 그러나 외화부족, 경제 상황 악화 및 정국불안으로 추진 동력 약화

○ 수단 과도정부, 경제 위기 해결 위해 10월 중 경제개혁, 구제 계획 발표 예정

– 정부 예산 및 지출 조정, 은행 구조조정, 물가 통제, 세재 개편, 부패 척결, 내년 6월까지 공식, 비공식 환율 일원화 방안 등이 포함 예정

엄격한 수입 및 외환 관리 시행

○ 미(美) 제재 여파, 석유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환부족으로 엄격한 외환 통제 시행 중

– T/T, L/C 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중앙은행이 통제, 수단발 L/C는 해외은행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두바이 등을 통한 3국 결제에 의존하는 경우 다수

* 수단 바이어들은 일부 CAD, D/A 결제, 주로 두바이를 통한 제3국 결제 방식으로 수입대금 결제 중

– 외화 반출입 시 공항 내 신고가 의무화돼 있으며, 시중은행에서 달러를 현지화로 환전, 인출하는 경우도 외화자금의 출처, 사용처를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존재

– 외화부족을 이유로 수입품목을 필수재, 비필수재로 구분, 비필수재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앙은행, 상업은행을 통한 수입 통제 시행

○ 미(美) 제재 여파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송금(in & out) 제약 존재

– 2017년 10월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테러지원국 지정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 송금에 제약 존재

– 단 2019년 과도정부 출범 후 일부 은행을 통한 송금 제약이 완화되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음 과도정부 안착 시 은행을 통한 자금 결제 원활화 기대

세계은행 평가 투자환경 순위 168위

○ World Bank 2019년 Ease of Doing Business 지수에서 수단은 190개국 중 162위 차지, 소수투자가 보호, 국경무역, 자금 조달 등 분야에서 최하 수준 기록

○ 아울러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 부패지수에서는 180개 국가 중 172위를 기록, 실제 수단의 정부 프로젝트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며, 고위층 일부는 블랙마켓(외화, 부동산자산, 금 거래 등)에 관여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 시장 분석

◈ 수단은 인구 42백만 명의 중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시장
- 나일강이 관통하는 풍부한 수자원, 금 등 천연자원과 우수한 인적 자원 보유

◈ 미(美) 제재해제, 30년 독재종식 및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이라는 양대 테마 보유
- 미(美) 제재 등의 영향으로 저평가된 시장, 제재의 역설에 착안한 시장 선점 필요

◈ 높은 수입의존도, 한국기업 및 한류 인지도 확산으로 우리기업 진출에 유리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인구 42백만 명, 이집트 남부에 위치해 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시장

○ 20년 이상 지속된 미국발 경제제재(1997~2017), 테러지원국 지정(1993~현재)으로 저평가된 상태지만 인구 42백만 명(아프리카 6위)의 아프리카 대표시장

– 세계 16위 면적(187만㎢) 국토에 금, 석유가스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국토를 관통하는 나일강 유역 농지(아랍권 전체 농지의 30%) 등 막대한 농축산 잠재력 보유

– 높은 교육열, 이슬람을 바탕으로 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 자원 풍부

※ 2019년 수단사태를 보도하면서 뉴욕타임즈는 수단을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중 하나**', 로이터는'**아프리카, 중동으로 가는 Gateway**'로 표현

○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시장으로서의 가치 중요

– 북으로는 이집트, 리비아, 동서로는 에티오피아, 차드, 에리트레아, 남쪽으로는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과 접경, 동쪽으로 홍해에 국제항만 보유

–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있지만, 종교(이슬람), 문화(이슬람), 교역(아랍권 국가에 의존) 면에서 아랍국가의 특징, 아랍권과 강한 연계

* 실제 수단은 아프리카 연합(AD) 및 아랍 연맹(AL)에 동시 가입한 상태

美 제재에 대한 역발상 필요, 낮은 개방도는 오히려 우리기업에 유리하게 작용

○ 서방 등 국내외 경쟁사 진출 저조로 수입품목 구성이 다변화되지 못한 상태

– 높은 수입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따른 위험요인이 고려되어 시장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낮은 상태로 신규 진출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

– 반면 수단 수입상,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 수입 수요 상존, 따라서 적정파트너 발굴, 위험 회피 장치 마련을 통한 시장선점 전략 구사가 필요한 시점

○ Post Sanction 시대에 대비한 미래 특수 선점 준비 필요

– 제재해제 본격화 시 단기적으로는 외환거래 규제 해소로 수출입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파이낸싱을 원활하게 해 외국인 투자,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가능

정부 주도 및 소비계층 분화 시장

○ 짧았지만 과거 사회주의 경험이 있는 데다 정부의 입김이 강한 개도국 특성을 반영, 다수의 공기업이 활동 중, 수출입 통제 등 정부 주도의 시장으로 광산업, 농축산, 제조 등 주요 산업에 걸쳐 정부 정책 및 지원 정도가 핵심요소로 작용

– GIAD(자동차조립), Khartoum Refinery(석유화학), Diamond(ICT)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공기업(공식 또는 비공식) 들이 다수 활동 중

○ 한편 수도 카르툼(8백만)으로의 인구 유입 가속화, 건설 및 대형 하이퍼마켓이 성행하고, 소비계층 분화로 고급 건축자재, 화장품 등 소비재 수요도 증가세

–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인구 비율은 도시가 15%, 지방은 50% 이상,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대학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산, 아프리카 국가 중 높은 교육 수준 보유

– 높은 수입의존도 대비, 낮은 소비 역량, 정부의 수입 통제 감안 시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 유연한 결제 조건 등 제시 제안

수출입 전문 에이전트 중심 시장

○ 20년간 지속된 미(美) 경제제재의 여파로 외국기업의 직접 진출이 부진한 상태며, 정부가 직접 소유, 또는 관리하는 수출입 전문 기업들이 시장 지배

– 대부분 대기업, 공기업들이 수출입 비즈니스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입유통의 상당 부분을 장악

○ 따라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현지 수입에이전트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가가 수단시장 진출 성공의 관건으로 작용

– 경제활동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감안, 정부조달 참여 역량 및 직접 금융거래 제약 상황을 감안하여 두바이 등 제3국 통한 외화 결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확인 필요

한국 기업 및 제품, 한류에 대한 높은 인지도

○ 자동차, 가전, 제약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이 선전하고 있으며, 중국산 대비 한국산은 품질,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음

– 과거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대우, 지금은 삼성(휴대폰 1위), LG(백색가전 1위), 기아, 현대차(승용차 1위), 대우-신풍제약(제약 2위) 등이 수단 시장 점유율 1~2위를 기록중이고 이로 인해 한국산 공산품 전체에 대한 호감도 상승

○ K-pop 동호회 활동, 태권도 등으로 높아진 한국에 대한 인지도 활용 가능

– 수단 K-pop 동호회는 자발적인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한국문화 소개 및 전파 중

나. 교역

최근 수출입 동향

○ 남수단 독립 후 석유를 대체할 수출품 부족으로 50억 달러 내외 무역적자 지속

– 수단 중앙은행에 따르면, 남수단 독립(2011) 전 수단 수출은 2010~2011년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했으나, 2012년 41억 달러로 급감, 2016년 30억 달러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 41억 달러, 2018년 35억 달러 기록

– 남수단 독립으로 인한 유전지대 75% 상실, 저유가에 따른 석유 수출 급감이 원인, 2018년 수단 전체 수출에서 석유가 차지한 비중은 14.9%로 급감

* 남수단 독립 전 석유 수출이 수단 전체 수출의 90%대 차지, 2018년 수단의 석유 수출은 2011년에 비해 90% 이상 급감

* 2018년 원유 수출 $4.4억(13.4%), 가솔린 수출 $50백만(1.5%) 등 총 $4.9억 수출
(2017년은 원유 수출 $3.2억(8%), 가솔린 수출 $65백만(1.5%) 등 총 $3.9억 수출)

– 금을 중심으로 한 광물 및 농축산물(참깨, 양, 낙타, 면화, 검아리빅 순) 수출에 의존 중이나 아직 석유를 대체하기는 역부족

– 금이 그나마 석유를 대체할 수출품으로 자리매김. 2015년 수단 광물부는 자국 금 매장량이 USD 2,890억 규모로 남아공,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3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실제 17개국 20여 개 광물 기업이 수단 내에서 금광을 운영 중이며, 2015년 금 생산은 80톤, 2017년 105톤, 2018년 83톤 기록

* 2018년 금 수출은 전년 대비 일시적으로 하락하며 수단 전체 수출의 25% 차지

○ 무역수지는 매년 50억 달러 내외의 적자 기록 중이며, 적자 폭은 2012~2018년 기준 GDP의 5~15%에 달하는 규모로 석유를 대체할 수출산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수단 대외 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2년	2013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	40.7	47.9	44.5	31.7	30.9	41.0	34.8
수입	92.3	99.2	92.1	95.1	83.2	91.3	78.5
수지	-51.6	-51.3	-47.6	-63.4	-52.3	-50.3	-43.7

자료 : 수단 중앙은행, 2019년 9월 기준

○ 수출은 남수단 독립, 석유 수출 감소 여파로 2012년 41억 달러로 급감 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 41억 달러, 2018년 35억 달러 기록

– 주요 수출품은 금, 산동물, 곡물류 등이며, 원유 수출은 연간 3~4억 달러 내외로 2018년에는 4.4억 달러 기록(포트수단 통한 남수단산 석유 수출 증가)

* 2018년 기준 주요 수출품은 금($8.3억), 참깨($5.8억), 양($4.7억), 원유($4.4억), 낙타($2.2억), 면화($1.6억), 검아라빅($1.1억) 순(벤젠 5천만 달러)

– 주요 수출대상국은 UAE, 중국, 사우디, 이집트 순으로 이들 4개 나라가 수단 전체 수출의 78% 차지, 대한(對韓) 수출액은 380만 달러로 수단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28위 수출대상국

* 2018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비중은 UAE(27%), 중국(22%), 사우디아라비아(16%), 이집트(13%), 인도(4%), 에티오피아(2%), 터키(2%) 순

○ 수입은 남수단 독립으로 인구의 20%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80억 달러 내외 유지

– 2012~2018년 평균 수입규모는 80억 달러, 2015년까지 90억 달러대 유지하다가 경제위기 심화로 2016년 83억 달러, 2018년 60억 달러 대로 감소

– 2018년 기준 주요 수입품은 석유제품이 9.9억 달러로(전체 수입의 30%)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밀, 설탕, 철강, 전기 및 비전기장치, 의약품 및 의료기기, 트렉터, 플라스틱 제품 및 원료, 식물성 오일, 종이류, 타이어, 화학제품, 자동차 부품이 뒤를 잇는 중

–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인도, UAE,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이들 4개 나라가 수단 전체 수입의 53% 차지, 대한(對韓) 수입액은 1.1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터키,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수단 수입시장 점유율 13위(2%) 기록 중

* 2017년 기준 수입대상국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수단 수입시장 국별 점유율(2018 기준)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수입시장 점유율(비중)
1	중국	1,657,756	23%
2	인도	794,044	11%
3	아랍 에미리트	746,018	10%
4	사우디아라비아	648,759	9%
5	러시아	595,659	8%
6	이집트	417,815	6%
7	터키	374,054	5%
8	독일	233,324	3%
9	태국	180,931	3%
10	오만	159,413	2%
11	일본	143,501	2%
12	인도네시아	118,512	2%
13	대한민국	112,897	2%
14	우크라이나	103,849	1%

자료 : 수단 중앙은행, 2019년 9월 추출

수단 주요 수입품목 동향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입품목명	2017년	2018년
1	Petroleum Products(석유제품)	905,095	991,095
2	Wheat(밀)	671,197	720,857
3	Sugar	329,252	560,385
4	Iron&Steel(철강 및 철강제품)	605,898	404,863
5	Non-Electrical Appliances	457,297	384,838
6	Electrical Appliances(전기전자, 가전)	450,766	379,504
7	Medical&Pharmaceutical Products	458,872	319,952
8	Tractors(트렉터)	301,152	235,231
9	Manufactured Plastic(플라스틱 제품)	215,488	173,550
10	Raw Plastic	178,824	167,814
11	Animal&Vegetable oils(동식물성 오일)	230,445	166,489
12	Paper Products(펄프, 종이류)	140,260	140,341
13	Tyres&Tubes(타이어 및 튜브)	137,363	132,902
14	Chemicals Products	134,254	129,839
15	Auto-spare Pars	199,849	129,416
16	Jute&Sacks	129,752	128,134
17	Trucks&Loories	193,007	120,365
18	Fertilizers(비료)	108,793	118,673
19	Ready Made Clothes	178,093	113,224
20	Manufactured Metal	112,749	110,313
21	T.V., Radios, Recorders&Tapes, etc.	119,846	94,257
22	Man-Made Filament&Staple	125,957	92,999
23	Motor Cars	205,426	92,717
24	Dairy Products(유제품)	89,023	73,367
25	Machinery Spare Pars	61,860	70,925
26	Lentils	61,764	65,316
27	Coffee	59,973	62,673
28	Glass&Class ware	74,853	60,110
29	Tea	58,621	59,325
30	Manufactured Wood&Cork(목재, 코르크 제품)	86,545	55,633
31	Books, Magazines, and Newspapers	57,464	53,108
32	Medical&Pharmaceutical Equipments	51,995	52,066
33	Air conditioners(에어콘)	56,856	50,453
34	Insecticides	41,138	47,234
35	Vegetable&Vegetables Products	63,720	46,589
36	Rice	38,834	41,784
37	Electrical energy	44,807	40,223
38	Accumulators	40,946	39,587
39	Tobacco	36,920	36,694

40	Footwear(신발)	77,757	36,429
41	Perfumes&Cosmetics	67,576	36,347
42	Ceramic Products	66,087	35,649
43	Seeds for Sowing	41,558	33,074
44	Aircrafts(항공기 부품)	-	32,519
45	Buses	52,683	31,578
46	Refrigerators(냉장고)	37,380	30,020
47	Aircrafts Spare Parts	14,011	29,070
48	Tanning&Dyeing Materials	31,937	27,749
49	Special Woven Fabrics(섬유류)	36,205	25,592
50	Motor-Cycles	49,165	23,604

자료 : 수단 중앙은행, 2019년 9월 추출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ㅇ 수단은 아직 WTO 미가입국으로 수입 시 고율의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복잡하게 부과되는 점을 감안한 가격정책 구사 필요

- 자국산업 보호 및 세수 목적으로 대부분 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현지 소매가는 수입가에 비해 매우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
-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도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VAT), 개발세(Development Tax), 영업세(Business Profit Tax), 기타 조세(Additional Duty, 일종의 특소세 성격)가 추가 부과되며,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일괄 납부
- 농기계, 의료기기, 광산기계 및 제련용 화학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필요에서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영업세(3%)만 납부, 반면 공산품, 고가 소비재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 부과

ㅇ 특정 중고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입금지 정책 기조 유지

- 출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고 자동차, 의류, 전자, 기계류 수입은 전면 금지
- 자동차의 경우 수입억제, 자국산업 보호 명목하에 출고된 지 1년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 물품까지 포함해서 전면 수입 금지, 단 중고 부품 수입은 허용
  * 수단 국적자가 해외 근무 후 이삿짐으로 가져오는 경우 1대에 한해서만 중고차량 수입을 허용
- 참고로 자동차용 폐배터리, 전자 부품류의 경우 내수 소비 충당을 위해 해외수출이 금지된 상태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별도의 수입규제 부과 건 전무

ㅇ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해온 수단 정부인만큼 주류, 음란물, 돼지고기 등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품목의 수입은 엄격히 금지, 이외 2016년 도입된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제도는 중국산만 적용

우리기업의 수출 성공/실패 사례 : 3항 참조

다. 투자진출 및(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외국기업 투자진출 및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동향

○ 미국발 제재, 남수단 독립 시 유전 상실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저조한 상태

– 미국발 경제제재(1997~2017년 10월), 테러지원국 지정(1993~현재)으로 인해 서방의 직접투자 및 차관 제공에 제약 존재, 이로 인해 중국 및 아랍권 지원에 의존

– 2000~2011년 석유생산 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석유 부분 투자가 주를 이뤘으나 2011년 유전의 75% 상실 이후 신규 및 증액 투자 급감

– 수단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10억 달러 내외 외국인 투자 기록 중이며, 주로 아랍권으로부터의 농업 및 광산업(mining) 분야 투자에 편중

○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역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만성적인 외화 부족,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한 파이낸싱 제약으로 소규모 프로젝트에 한정

– 그나마 미국의 영향을 덜 받는 중국, 아랍권으로부터의 소규모 차관에 의존해 왔으나 2011년 유전 상실 후에는 투자 분야 감소, 수단 측의 차관상환 지연 반복으로 신규 자금지원 및 프로젝트 추진도 정체 상태

– 수단 정부가 계획 중인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는 공항, 도로, 수처리, 폐기물 처리 분야, 이외 철도, 전력(발전, 송배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나 재정, 외국인 투자 및 지원 부족 속에 추진 속도 느린 상태

직접투자 및 프로젝트 진출 진입장벽

○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외환을 취급하는 수출입,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단독투자를 불허, 그 외 업종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 무(無)

– 1999년에 투자법을 제정했으며, 2003, 2007, 2013년에 걸쳐 개정, 지금은 2013 투자촉진법(National Investment Encouragement Act, 2013) 적용 중

– 동 법규는 농업, 축산, 제조, 에너지, 광업, 교통, 관광, 사회 인프라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촉진,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단 투자촉진법은 내외국 기업에 대해 동일 적용

○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경우도 외국기업 참여에 대한 명시적 제한은 없으나, 수단은 WTO 미가입 및 WTO 정부조달 협정 미서명국으로 수의계약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

– 아울러 미국발 제재에 따른 서방으로부터의 차관, 파이낸싱에도 제약 존재

우리기업 및 경쟁국 동향

○ 2019년 현재 수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은 LG전자(가전), 삼성전자(가전휴대폰), 포스코대우(의약품생산법인) 등이며, 이외 현대기아차, 두산중공업 등이 현지 에이전트를 운영중임

○ 주요국별 투자진출 동향은 아래와 같음

– 민군합동 과도정부 안착 및 美 경제제재 해제 시 외국기업의 대(對)수단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는 바,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잠재적 가치 보유

* 수단과 조세조약 체결국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영국, 터키, 이집트 등 17개국

국별 대(對)수단 투자진출 동향

(단위 : 억 달러)

국가	투자 내역
중국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tation 의 석유개발, Shanghai Medicine의 복제약 공장, Nantong 호텔 투자 등 100여 건 * 中 농무부 장관 방문(2016년 9월), 인민의회 부의장, 석유공사 부회장 방문(2017년 8월) * 2018년 9월 북경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중국 석유공사(CNPC)와 수단 석유가스부가 2, 4, 6광구 석유 증산 및 2A, 4광구 생산 석유 분배계약 체결 – 이외 양국정상회담에서 수단 내 가스 탐사, 개발, 생산 협력, 중국은 수단에 4억 위안의 차관 및 2억 위안을 무상지원한다는 계획 발표(총 88백만 달러) * 중국은 수단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美 경제제재로 Shell 등 美자본이 철수한 직후, 1997년부터 본격화, 지난 20년간, 약 2백억 달러 규모의 석유, 통신 분야 투자, 그러나 최근 들어 남수단 분리 독립, 저유가 등 영향으로 정체 상태
일본	유무상 ODA 중심의 정부 프로젝트 지원에 집중, 개별 투자 진출기업은 없음
EU	직접투자 기업은 극소수이고 개별 수출을 위한 에이전트 중심 거래 * 헝가리 지역거점 무역사무소 설치 및 운영(2014)
말레이시아	Petronas(석유), 철강 분야 등에서 합작법인 운영 중
인도	TATA(자동차), 석유 개발, 제약 등 다수 진출
중동	UAE, 사우디, 쿠웨이트 등 금융, 농업, 통신 등 부문 투자 활발 * Amtar(UAE, 농업), Alkafaa(사우디, 농업), 카타르은행(카타르, 은행), 카르툼뱅크(UAE, 은행), Byblos Bank(레바논, 은행), Zain(쿠에이트, 이동통신), MTN(사우디, 이동통신), Qanar(UAE 이동통신), Elswedey Electric(이집트, 케이블), Coronthia(리비아, 호텔), Rotana(UAE 호텔)
기타	Mangem(모로코, 금광), Orca Gold(캐나다, 금광), Alliance(러시아, 금광) 등

자료 : 무역관 종합

우리기업 투자, 프로젝트 진출 성공/실패 사례 : 3항 참조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가. 교역

수출입 동향 및 한국제품에 대한 평가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수단 수출 규모는 128백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수출(USD 6,049억)의 0.02%에 불과, 수단으로부터 수입액도 58백만 달러로 비중면에서는 미미한 수준

– 그러나 美 제재 여파로 수단으로의 직수출보다 두바이 등 중동 국가 등을 통한 우회 수출을 감안하면 실제 수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

○ 한국관세청을 통해 집계된 2018년 연간 대(對)수단 수출기업 수는 780여 개 사로 매년 수출기업 수는 1천 개사 내외로 집계

– 이 중 60% 정도가 자동차 부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무역상으로 추정됨

한-수단 교역 동향

(단위 : 천 달러, %)

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9년 4월 누계	49,286	14.2	3,908	-50.8	45,378
2018년	127,563	-22.3	57,587	166.3	69,976
2017년	164,174	10.0	21,629	86.6	142,545
2016년	149,183	-8.7	11,588	-35.0	137,595
2015년	163,358	16.0	17,819	-42.2	145,539
2014년	140,815	-15.1	30,834	-74.8	109,981
2013년	165,870	20.9	122,166	182.7	43,704
2012년	137,249	-22.9	43,214	93.5	94,035
2011년	177,936	5.8	22,338	28.6	155,598

자료 : 한국관세청, 2019년 9월 추출

○ 2018년까지 한국의 대(對)수단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건설중장비 부분 품류, 자동차(승용), 가전, 석유화학,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이 대표적이며, 미국의 대(對)수단 제재 해제 효과가 발휘되면 경제개발 위한 자본재, 소비재 수요도 증가 기대

– 2018년에는 특히 농산가공품(257%), 종이 제품(74%), 정밀화학원료(72%), 의약품(28%), 펌프(19%), 축전지(18%), 합성수지(15%) 등이 전년 대비 높은 수출증가세 기록

– 특히 농약 및 의약품, 정밀화학제품, 건설광산기계, 종이 제품 들은 최근 수년간 높은 수출 증가세 기록 중

* 2018년 기준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부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56% 점유

한국의 대(對)수단 20대 수출품목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7년			2018년		
		수출액	비중	증감률	수출액	비중	증감률
	총계	164,174	100%	10.0%	127,563	100%	-22.3%
1	자동차	44,628	27%	21.9	26,549	20.8%	-40.5
2	건설광산기계	28,947	18%	40.0	24,291	19.0%	-16.1
3	자동차 부품	21,060	13%	9.4	20,355	16.0%	-3.3
4	건전지 및 축전지	7,870	5%	13.8	9,321	7.3%	18.4
5	농약 및 의약품	6,698	4%	117.1	8,557	6.7%	27.7
6	합성수지	6,082	4%	-1.0	6,997	5.5%	15.1
7	기타 석유화학제품	9,729	6%	50.7	3,935	3.1%	-59.6
8	정밀화학 원료	1,592	1%	49.1	2,733	2.1%	71.7
9	원동기 및 펌프	2,016	1%	-75.6	2,394	1.9%	18.8
1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585	2%	1.5	2,367	1.9%	-8.5
11	고무 제품	3,138	2%	-26.9	1,757	1.4%	-44.0
12	종이 제품	976	1%	236.9	1,703	1.3%	74.4
13	신변잡화	1,445	1%	-57.3	1,692	1.3%	17.1
14	플라스틱 제품	2,096	1%	16.6	1,250	1.0%	-40.4
15	전자응용기기	2,032	1%	55.0	998	0.8%	-50.9
16	농산가공품	265	0%	-30.8	946	0.7%	257.1
17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219	1%	-1.6	883	0.7%	-27.5
18	기타 기계류	1,981	1%	152.9	805	0.6%	-59.4
19	기타 정밀화학 제품	4,486	3%	63.0	773	0.6%	-82.8
20	섬유 및 화학기계	1,017	1%	158.0	673	0.5%	-33.8

자료 : 한국관세청, 2019년 9월 추출

ㅇ 아래 WTO 자료에 따르면 수단 수입시장 내 한국제품 점유율은 자동차 및 부품류 14%, 유기화합물 16%, 기계류 5% 등으로 집계. 그러나 현지생산 등을 감안 시 한국브랜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자동차 50% 이상, 가전 70% 이상 등으로 파악됨

– 특히 승용차의 경우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60% 이상, LG전자, 삼성전자의 가전(에어컨, 냉장고, TV 등) 점유율도 압도적 1위 기록 중

– 한국산 제품은 바이어 사이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비해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 같은 반응은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중장비 및 부품 등 분야에서 시장 확대에 기여 중

수단 수입시장 내 한국제품의 품목별 점유율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 목	2017년 한국으로부터 수입액	2013~2017년 연평균 증감률	수단수입시장 내 한국산 점유율
	수입 총액	315,237	-1	3
1	자동차 및 부품류	196,919	-5	14
2	기계류	63,208	2	5
3	전기장치	16,738	3	3
4	유기화합물	11,844	-5	16
5	플라스틱 및 제품	7,856	-1	2
6	고무 및 제품(타이어)	4,059	-3	3
7	철도, 철도차량 및 부품	2,336	-9	8
8	비누, 세제류	2,248	8	4
9	기타 화학물질	2,150	0	2
10	의약품	1,242	24	0

자료 : WTO, ITC, 2019년 9월 추출

○ 한편 2018년 기준 한국의 대(對)수단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U$ 39백만), 동스크랩(U$ 14백만), 연제품(U$ 2.3백만), 알루미늄스크랩, 식물성 액즙 정도

– 2015년까지는 폐배터리 등이 수입된 바 있으나, 현재는 수단에서 폐배터리, 폐전자 부품의 해외 수출을 금지한 상태며, 2015년의 경우 2백만 달러 규모의 참깨 수입

우리기업 수출 성공 사례

◈ 국내 A사(POS 프린터) 대(對)수단 D사에 POS 프린터 납품
- 수단 내 일반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기업 활동 중임에 착안, ICT 분야 공기업 타기팅
- 수단 D사 발굴 및 국내 A사에 D사 소개, POS 입찰 정보 제공, 지사화 서비스 통한 수주 마케팅 지원(수단 최근 들어서야 Debit 카드 사용 개시, POS 시장 증가세)
- 수주 내역 : 국내 B사, 수단 공기업인 D사에 POS 프린터 2,500대(USD 20만), 1차 계약 후 2015년에만 2백만 달러 수출(아국기업 최초의 대수단 ICT 프로젝트 수주 기록)

우리기업 수출 실패 사례

◈ 국내 B사(중전기), 이메일 해킹에 따른 바이어 신뢰 상실 및 수출 실패
- 중전기 제품 수출 B사 수단 C사에 중전기 2대(3.5만 달러 상당) 납품 계약 체결
- 양사 이메일 교신 과정에서 해킹 발생, 해커 쪽에서 바이어에게 B사를 가장, 엉뚱한 결제 계좌를 알려줘 C 바이어는 해킹계좌로 대금 송금
- 국내기업 잘못은 아니나 바이어는 국내기업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추가적인 거래 협의 단절
- 중동, 아프리카 바이어와 거래 시 이메일 해킹에 대비, 결제 계좌 이중 확인 필요

나. 투자진출/프로젝트

우리기업의 대(對)수단 투자진출 현황

○ 한국수출입은행이 집계하는 해외투자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우리기업의 최근 수년간 대(對)수단 투자진출은 미미한 상태

○ 현재 수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은 포스코대우-신풍제약(의약품 제조 및 판매법인), 삼성전자(현지인소장, 연락사무소), LG전자(연락사무소) 정도

– 이외 현대기아차, 두산중공업 등이 현지 딜러를 통해 자동차, 중장비 등 판매 중

○ 아직까지 수단 측 이슈로 인해 한국-수단간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미발효된 상태로 직접투자 방식 진출에 필요한 제도마련 필요

우리기업 투자진출 사례

◈ 대우그룹, 80~90년대 전방위적 투자진출 통해 수단을 아중동 제조 검점화 추진

- 1980년대 이후 대우그룹은 김우중 회장 시절, 수단을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으로 인식, 제조업(타이어, 피혁, 섬유, 제약)은 물론 은행, 호텔까지 전방위적인 투자 단행, 수단 내 최대 외국인 투자기업 위치를 차지한 바 있음
- 수단은 대우 입장에서 최초의 대규모 해외 투자처였으며, 당시 대우는 수단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 수단을 중동아프리카 제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보유
- 이후 대우그룹 매각과 함께 현재는 제약법인인 GMC(General Medicines Company)만 운영 중. GMC는 대우포스코 33%, 신풍제약 33%, 현지기업 34% 지분을 보유한 합작투자기업으로 제조 의약품 전체를 수단 내 판매 중. 각종 캡슐용 필름, 약병 등의 포장재는 이집트, 인도 등지에서 조달 중이며, 2006년 제2공장을 증설, 2017년 매출 2천만 달러로 수단 내 제약 시장 점유율 2위 기록 중, 추가 공장 확장 검토 중

◈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대리점 관리를 목적으로 수단에 진출, 현지기업과 손잡고 가전, 휴대폰 판매에 박차를 가한 결과 현재 수단 가전 휴대폰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를 기록하며, 한국제품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우리기업의 대(對)수단 프로젝트 수주 동향

○ 수단이 1990년대 이후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아온 탓에 파이낸싱 제약,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SOC 프로젝트 참여도 활발하지 않은 편

○ 단 앞서 언급한 수단시장의 규모, 잠재력 및 전략적 가치, 한국기업의 높은 인지도 감안 시 수단 과도정부가 안착하고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연결될 경우 프로젝트 시장 급성장 및 한국기업 다수 참여 예상

– 아래 예시에서 보듯이 한국기업은 과거 대우그룹, 한국종합기술 등이 프로젝트시장에 참여 경험 및 높은 인지도 보유, 향후 시장 활성화 시 수혜 기대

수단 신공항 건설 감리 프로젝트 수주 사례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초의 국내기업 공항 건설 설계/감리 용역 수주(2015년 4월)
- 발주처 : Sudan Airport Holdings Company LTD(SAHL)
- 프로젝트 규모 및 재원 : 2,040만 유로(수단 정부)
- 수주기업 : 한국종합기술, 근정(종합건축사무소) JV

한국기업의 수단 건설, SOC 프로젝트 참여 실적

구분	프로젝트명(사업 규모)	수주기업 (수주연도)	자금원
교통	수단 신공항 감리(2,040만 유로) * 설계, 시공, 사후관리 전과정 감리	한국종합기술&근정 컨소시엄 (2015년)	수단 재무부 (공항공사)
교통	노후 전동차 개보수(1천만 유로) * 10대 개보수	3R E&C (2013년)	수단 재무부 (철도청)
교통	Argeen~Dongola 고속도로 설계 (5백만 달러)	대한콘설탄트 (2010년)	수단 재무부 (Alzawaya 그룹)
교통	Darfur 3개 지역 공항, 항공등화 공급 및 설치(1,590만 달러)	유양산전 (2010년)	UNAMID
전력	아프라변전소 기자재, 기술 제공 (1천만 유로)	LG산전&대동아이엠 컨소시엄 (2009년)	수단 재무부 (전력청)
전력	카르툼 화력발전소 Phase II 프로젝트(3천만 달러) * 발전제어, 전기설비 부문 참여	LS 산전, 한전KPS, 대동아이엠 컨소시엄 (2008년)	IDB (이슬람개발은행)
전력	바낫 변전소 기자재, 기술 제공	LS산전 (2008년)	수단 재무부 (전력청)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무역투자 활성화

○ 수단 정부는 자국의 산업화, 광물, 석유 자원개발 정책 등에 한국 참여 희망
- 1990년대까지 대우그룹은 수단 내 최대 외투기업 지위를 유지하며 한-수단 간 경협 활발했으나 대우그룹 해체 후 양국 간 교역투자 위축
- 우리기업의 투자진출은 수단 정부가 한국 측에 가장 기대하는 사항이나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의 영향으로 아직 수단 내 외국인 투자는 아랍권의 농업, 광산개발, 복제약 생산 등에 국한된 상태

○ 과도정부 안착 및 美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 무역투자 전반에 우리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상생협력 기반의 제조업 분야 협력 확대

○ 자동차조립, 의료기기, 타이어, 기초 플라스틱, 포장인쇄 등 분야에서 수단 중대형 기업의 제조업 신규 진출/확대 수요 포착

– DAL, GIAD, CDC 등 대기업들도 제조업 확장에 나서고 있어 우리기업의 플랜트, 설비, 부품 공급 및 엔지니어링 분야 참여를 통한 상생협력 기회 존재

– 한국산 기계설비, 제조 플랜트, 부품소재, 중간재 및 원부자재 수요 증가세

○ 수단 중대형 기업의 제조업 진출 수요에 맞춘 아국 기계설비, 원부자재 수출 기회로 활용 및 수단 제조업 발전에 기여 필요

농축산·광업 현대화 지원

○ 석유를 대체할 금 등 광산업 육성 절실

– 2017년 처음으로 금 생산 100톤 돌파, 금은 석유를 대체하는 수단 최대 외화수입원으로 자리매김. 매년 수단 전체 수출의 30% 내외 차지

– 수단은 아랍권 농지의 30%를 차지, 아랍권 최대 농업국으로 농축산업 현대화를 위한 농기계, 비료, 사료 및 첨가제 등 사용 장려

– 아직까지 농축산, 광업 현대화 미비, 현대화 통한 수출산업화 절실

○ 농축산·광업 현대화로 증가 기대되는 농기계 및 장비, 광산장비 및 제련용 화학제품 수요 확대 기회 활용 필요

Ⅲ. 진출전략

◈ 과도정부 안착 및 미(美) 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응한 선점 마케팅 구사
- 외국기업 진출 미미 속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 기회 포착(제재의 역설)

◈ 수단정부 및 기업의 산업화(제조업 육성 등) 정책에 부응한 상생협력형 마케팅 전개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수단 시장 SWOT 분석>

S 강점 (Strength)
- 인구 42백만 명(아프리카 6위) 내수시장 보유
  - 풍부한 인적(높은 교육열), 물적 자원 (광물, 농축산자원, 나일강 수자원) 보유
- 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시장 요충
- 한국기업-한류로 높아진 한국이미지
  * 자동차, 가전, 제약 등 한국기업의 수단 시장 점유율 1-2위

W 약점 (Weakness)
-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저가 중심 시장
- 재정 부족으로 산업화 동력 미약
- 물류, 유통 및 SOC 인프라 부족
- 미(美) 제재, WTO 미가입에 따른 관세, 비관세 장벽
  * 은행을 통한 금융 거래에 제약 존재

O 기회 (Opportunity)
- 30년 독재 타도, 민간주도 과도정부 출범
  - 정국 안정 및 자유화, 시장 확대 기대
- 미국발 테러지원국 해제논의 본격화 기대
- 남수단 평화협정으로 석유 증산 기대
- 하이퍼마켓 성행 등 도시화, 소비 현대화
- 정부 주도의 제조, 농축산, 광산업 육성 정책

T 위협 (Threat)
- 민군합동 과도정부 체제 불안 요인
  - 군 및 지방 군벌세력과 갈등요인 존재
- 외화 부족에 따른 환율, 물가 급등 및 소비위축
- 중국, 인도계 기업 진출 확대 및 경쟁 심화
  - 서방기업 진출이 미약한 점은 우리기업에 기회로 작용, 시장 선점전략 필요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정국 안정 및 자유화, 미국발 제재 해제 확대에 대비한 중동-아프리카 연결 거점 특수 선점 • 높아진 한국브랜드 활용 마케팅 전개	정국 안정 및 미(美) 제재 해제 대응 선점마케팅 구사
ST 전략 (강점 활용)	• 정국 및 환율, 물가동향 주시 및 경제회복 대비 • 금융제약 해제 전까지 제3국 통한 결제선 확보	제3국, 공공부문과 연계된 유력파트너 발굴
WO 전략 (기회 포착)	• 산업화, 특히 제조업 육성정책과 연계한 수단 대기업(공기업)과 파트너링, 시장 확대에 대비 • 정국안정, 시장 확대에 대비한 선점마케팅 구사	산업화, 제조업 육성 정책 연계 상생마케팅 전개
WT 전략 (위협 대응)	• 적정기술 제품 및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 • 정국, 시장 동향 주시 및 차별화 전략 구사	적정기술 반영 및 차별화 전략 구사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0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	○ 30년 독재정권 축출(2019년 4월 쿠데타),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2019년 9월)으로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감 상승 ○ 민군합동 과도정부 성공 시 수단 민주화, 경제발전 가속화 기대, 시장선점 전략 필요
美 제재해제 확대 가능성	○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2017년 10월) 효과 본격화, 테러지원국 지정(1993년~현재) 해제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상승 ○ 제재로 인한 서방 기업 진출 저조, 새로운 제품에 목말라 있는 바이어, 소비자 수요에 타깃팅 한 역발상 마케팅 필요 * 제재에 따른 낮은 경쟁이 우리기업에 유리하게 작용
환율, 물가 안정 등 경기회복 가능성	○ 환율, 물가 동향에 주시하며 기존 거래선과 관계 유지 ○ 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신규 거래선 발굴 ○ 당분간 은행 통한 수출대금 결제 제약은 3국 결제로 해결
수단 정부의 산업화 정책	○ 수단 제조업 육성정책에 타깃팅한 기계설비, 원부자재, 부품소재, 중간재, 플랜트, 엔지니어링 수출 추진 ○ 농축산, 광산업 현대화에 대응한 장비, 기구 수출 추진
도시화, 소비 현대화 진전	○ 높아진 한국브랜드를 활용한 소비재 시장 공략 ○ 저품질의 중국산을 기피하는 중상류 소비층 타깃팅 ○ 적정기술, 유연한 결제조건 제시 통한 시장진입 시도
추진전략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 미(美) 제재 해제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阿-중동 거점시장 선점

2-1.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회복 대응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9년 4월 쿠데타 발발로 30년 독재정권 축출, 2019년 9월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
  * 향후 39개월간 과도정부 체제 유지 후 선거 실시에 합의
- 민간 중심의 과도정부 출범으로 민주화, 자유화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 상승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8년 이후 대규모 반정부시위에 이은 쿠데타, 군과도위와 야권연대 간 협상을 통해 민간주도 과도정부 출범(2019년 9월 민간출신 총리 및 내각 임명)
  - 30년간 이어진 이슬람 근본주의 바탕의 군부 독재정권 타도로 새 시대에 대한 희망 상승, 민주화, 자유화 진전과 함께 경제발전 기대
  - 바이어들도 지금이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적기라며 신규 거래선 발굴에 나서는 상황 다수 포착
- 3년여간 이어질 과도정부 기간 중 야권, 군부 내, 군부-정치권 간, 중앙-지방 군벌세력과 갈등 재발 극복이 관건
  - 종교, 자원 및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혼란 재발 가능성 극복 필요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정국 및 경제 상황, 외국기업과의 관계 개선 여부에 주목 필요
  - 2020년은 과도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국 안정 여부, 물가, 환율 등 경제지표 안정화 여부, 서방 등 외국기업과의 관계 개선 여부에 주목 필요
  - 과도정부 안착, 외국과 관계 개선 시 외국인 투자, 국제사회 원조 급증으로 경기 급반등 가능, 소비재 및 산업재 전반에서 수입증가 및 거래선 다변화 기대
- 경기회복 대비 시장선점 전략 구사 필요
  - 정국 상황에 주목하면서 기존 거래선과 관계 유지
  - 현지 비즈니스 특성을 감안, 면대면 마케팅을 통한 유망 파트너 선 발굴

2-2. 미국발 제재해제 확대 가능성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1997~2017년 10월) 효과 본격과 대비
  - 과도정부 안착, 서방과 관계 개선 시 금융거래 원활화, 무역투자 확대 효과 본격화 가능
- ○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1993년~현재) 해제 대비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 서방으로부터의 지원, 차관, 외국인 직접투자 급물살 예상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미국발 경제제재(1997~2017년 10월) 해제 효과 본격 발현 기대

– 2017년 10월 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러지원국 지정 상태로 인해 서방으로부터의 지원 및 투자, 금융거래 곤란 속에 효과 미발현

* 명시적 금융, 무역투자거래 제한 해제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통한 송금 제약 여전히 존재

– 반정부시위에 이은 2019년 4월 쿠데타로 미국이 반대해온 이슬람 독재정권 축출, 국제사회지지 속에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으로 제재해제 논의 본격화 기대

* 실제 2019년 7월 전후 미국이 대(對)수단 은행거래 제약 단계를 일부 완화, 한국과의 은행을 통한 자금 송금도 일부 재개된 것으로 확인됨

○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1993년~현재) 해제 협상 가속화 기대

–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해 서방으로부터 차관, 파이낸싱, 금융거래, 부채 탕감 제약

– 테러지원국 해제 시 외국으로부터 차관, 지원 통한 산업화, 경제회복 급물살 가능

– 2019년 9월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이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긍정 영향 기대

* 미(美)–수단은 2018년 10월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협상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바 있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제재의 역설에 착안한 선점 마케팅 필요

– 오랜 제재는 수단기업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입품 접근을 제약, 서방 등 외국기업 진출이 제한된 상태여서 신규진출 추진 우리기업에 유리하게 작용

– 한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품질, 가격경쟁력 확보 시 수출 유망

○ 제재해제 확산, 과도정부 안착에 대응한 신규 거래선 先 확보

– 이메일보다 SNS(Whatsapp 선호), 면대면 마케팅을 선호하는 수단 바이어 특성 감안, Whatsapp, 인근국 전시회, 현지 출장 등을 적극 활용

– 제재해제 전까지는 제3국 결제루트 확보 등 결제역량 보유여부 확인 필수

2-3. 환율, 물가 안정 등 경기회복 가능성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부패 독재정권, 유전 상실로 인해 촉발된 외화 부족, 환율, 물가 불안 심화
* 2018년 물가 상승율 73%, 시장환율 2018년 1월 1달러당 29SDG에서 12월 62SDG로 두 배 넘게 상승

○ 30년 독재정권 몰락,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으로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외화 부족에 이은 환율, 물가 급등으로 정권 몰락

– 2011년 남수단 독립 시 유전의 75%가 남수단에 귀속되면서 외화부족 촉발

– 이후 만성적인 적자, 부채 증가로 물가 및 환율 급등 지속

* 특히 2017년 10월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 후 당초 기대와 달리 달러공급원은 없는 상태에서 달러의 자산화, 가수요까지 겹치면서 2018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72%, 환율은 2배 이상 급등 기록

○ 경제위기로 인한 30년 독재정권 몰락,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으로 기대감 상승

– 과도정부 안착 시 서방, 아랍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안정화 기대

* 사우디, UAE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30억 달러 규모 대(對)수단 공동 원조 계획 발표, 5억 달러는 현금, 나머지는 현물 지원(현금 지원분 5억 달러 기 예치 완료)

* EU 주요국, 중국 등도 대(對)수단 지원 확대 의사 표명 중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과도정부 출범, 미국발 제재해제 확대에 더해 남수단 석유 증산, 수단 내 금 생산 및 수출 관련 투명성 제고 시 수단 외환사정 단기간 내 개선 가능

* 현재 수단 최대 외화 수익원은 금 수출, 수단은 남아공,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3위 금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수출의 1/3을 금에 의존 중, 그러나 밀수출 성행, 2017년 금 생산이 처음으로 100톤을 넘어섰다고 발표되었으나, 실제 금 생산은 250톤에 달하며, 밀수출액이 정상 수출액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기존 거래선과 관계 유지 및 유망 파트너 신규 발굴을 통해 경기 회복에 대비

○ 경제회복 본격화 전까지는 환율, 물가 동향을 주시하며 전문수입상 타게팅

– 수단정부의 수입 통제, 은행을 통한 송금 제약속에 수입자의 결제 역량 중요

– 정부 승인하에 운영되는 수출입 에이전트와 거래 및 두바이 등 3국 결제 활용

2-4. 수단정부의 산업화 정책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석유 자원 상실 후 제조업 육성, 농축산광업 수출산업화 등 산업화에 역점
  *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2019), 新과도정부의 경제개혁(구제) 계획
- ○ 新정부 출범에 따라 산업화 정책 탄력 기대감 상승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 남수단 독립에 따른 유전의 75% 상실, 석유대체 위한 제조업 육성 추진
  - – 2000년대 초까지 수출의 90% 이상 차지하던 석유 대체할 수출산업 절실
  - – 정부 육성책 속에 공기업, 대(중견) 기업의 제조업 신규(확장) 수요 다수 포착
    * 자동차, 가전 조립, 플라스틱, 의료기기, 제약, 플라스틱, 포장, 타이어, 섬유 등
- ○ 수단 GDP의 30% 이상 차지하는 농축산광업의 현대화, 수출산업화 추진
  - – 나일강이 관통하는 아랍권 최대 농축산 국가이나 석유개발에 치우쳐 낙후
  - – 아프리카 3위 금생산 등 광물자원 풍부하나 투자 부족속에 규모 영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 수단 내 한국 제조업의 높은 인지도 활용, 제조업 진출을 희망하는 수단 공기업, 대(중견)기업과 상생협력 마케팅 추진
  - – 기계설비, 원부자재 및 중간재, 부품소재, 플랜트엔지니어링 공급
- ○ 농축산광업 현대화 소요 장비, 기구 수출 타기팅
  - – 농기계 및 기구, 비료, 사료 및 첨가제, 광산장비 및 제련용 화학제품 등 시장공략

2-5. 도시화, 소비 현대화 진전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수도 카르툼으로 인구 유입, 하이퍼마켓 등 현대식 유통망, 소비패턴 확산
  * 카르툼 인구 8백만, 인근 옴두르만 포함 시 1천만 명 내외 추산
- ○ 한국산 자동차, 가전 시장 지배, 한류 확산 속에 한국브랜드 인지도 상승
  * 승용차 시장 점유율 60% 이상, LG, 삼성은 가전 시장 1, 2위, 포스코(신풍) 의약품 시장 2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00년대 석유 생산을 기점으로 수도(카르툼)로의 인구 유입 가속화
  - 교통 인프라(포장도로) 및 현대식 유통망(하이퍼마켓, 쇼핑몰, 가맹점) 증가
  - 도시화, 해외 취업 확산에 따른 중산층 소비자 증가, 소비계층 분화 진전
- 한국 기업 선전 및 한류 확산으로 한국제품 및 국가 브랜드 높아진 상태
  - 승용차, 가전, 의약품 등 품질, 건강 및 안전 직결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산 선호
    * 현대기아차(승용차), LG, 삼성(가전 및 휴대폰), 포스코대우-신풍제약(의약품) 등 수단 내 시장 점유율 1~2위 기록 중
  - K-Pop, 한국 드라마 인기 상승도 한국제품 선호에 긍정적으로 작용
    * 현지인으로 구성된 한류 동호회(K-Pop, 드라마, 영화) 활동 및 한국 드라마 고정 방송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안전, 건강, 내구성이 강조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산과 차별화 전략 구사
  * 화장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계설비, 자동차 등
- 이메일, 홈페이지 활용보다 면대면 마케팅, SNS(Whatsapp) 사용을 선호하는 현지 비즈니스 관행을 반영해 인근국 전시회, 현지출장 등을 통한 파트너 발굴

3 한-수단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20년 진출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제조업 육성 상생협력	○ 수단 정부의 제조업 육성책, 공기업, 대(중견)기업 대상 제조업 신규(확대) 진출 수요 파악 ○ 기계설비, 중간재 및 원부자재, 부품소재, 플랜트 엔지니어링 협력 수요 타기팅
광업현대화 및 수출산업화	○ 수단 금, 남수단 석유 증산 현실화 동향에 주목 ○ 광산장비, 제련용 화학제품 등 수요 증가에 대응
농업현대화 및 수출산업화	○ 수단 최대산업인 농축산업 현대화 연관 수요에 주목 ○ 농기계 및 장비, 비료, 사료 및 첨가제 수요 증가에 대응
보건의료 환경 개선	○ 의약품, 의료기기 현대화, 수요 증가세 대응 ○ 공공 조달 및 ODA(공적개발원조) 시장과 접목 추진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니치 마켓	○ 과도정부 출범, 외국으로부터 파이낸싱 지원 확대 가능성에 따른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변화 주목 ○ 국제기구(AfDB, WB, AIDB, UN 등) 지원 및 외국차관을 활용한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 가능성에 대비
추진전략	수단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부응한 상생협력형 수출마케팅 전개

3-1. 수단 제조업 육성정책에 맞춘 상생협력형 마케팅 전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산업화 추진 정책의 핵심 의제로 제조업 육성 역점
* 2011년 남수단 독립 시 보유 유전의 75% 상실, 석유를 대체할 외화수익원 절실

○ 한국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제조업 신규, 확대 진출 수요도 다수 포착되는 상황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남수단 독립 시 보유유전의 75% 상실, 외화 부족 탈피를 위해 제조업 육성 절실
- 수단은 공산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중, 제조업은 설탕, 시멘트, 자동차 및 가전 조립, 기초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약, 의료기기 일부 분야에 한정
- 중고 자동차 및 의류 수입 제한,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제조업 육성 노력 중

○ 공기업, 대(중견) 기업들의 제조업 신규(확장) 진출 수요 다수 포착
- 자체 연관산업 및 인프라 부족, 자본 기술 부족으로 외국기업과 협력 필수
- 이들 기업은 한국 제조업의 우수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 협력 희망

<예시> 최근 2년간 파악된 수단기업의 제조업 신규/확대 진출 수요

기업명	진출/확대 분야	비 고
GIAD	자동차조립(CKD)	수단 공기업으로 현대차 조립 생산 확대
DAL Motors	자동차조립(DKD)	수단 최대 기업그룹이자 기아차 딜러, 조립공장 완공(2017년 9월)
CTC	백색가전	LG 백색가전 조립공장 생산, 모델 확장 수요
Gufran	도축공장	한국 설비 도입 희망
Abbas Yasin	타이어	과거 대우 타이어공장 보유 시 공식 딜러로 자체 공장 설립 추진, 한국설비 도입 관심
Morouj/Alkholafa	배터리	수단 내 대표 유통기업으로 배터리 제조공장 설립 추진
Central Lab	의료기기	한국산 생산설비, 반제품을 도입하여 신속 진단키트 공장 설립(2018년 2월)
Benan Rope	플라스틱 로프/테잎	한국산 설비 및 스페어파트, 원료 다수 사용중
Avamed Medical	주사기 및 바늘	한국산 설비 사용 중, 공장 확장 위해 한국산 설비, 원부자재 소싱 희망
Moawja	포장/인쇄	독일산 기계 사용 중이나 한국산 기계, 원료 구매 관심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수단기업의 제조업 진출 수요 파악, 이들 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원부자재, 중간재 및 부품소재, 플랜트 엔지니어링 수출 추진
- 유망 분야 : 섬유의류, 피혁, 신발, 자동차조립, 의료, 도축, 포장, 플라스틱 등

○ 단 연관산업 미비로 인해 수단 기업들은 관련 제품, 설비,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일괄 공급할 수 있는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점 고려 필요

– 제조업 강국으로 알려진 한국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패키지형 일괄공급

3-2. 광업, 농축산업 현대화 정책에 맞춘 시장 진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석유를 대체할 외화 획득 위해 금 등 광물자원 개발 역점

* 수단은 아프리카 3위 금 생산국, 2017년 금 생산 100톤 돌파

○ 아랍권 최대 농지, 국토를 관통하는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농축산 대국

* 아랍권 보유 농지의 30% 차지, 가축 1.1억 마리 이상, 광활한 농지로 인한 기계화 수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석유대체 위해 단기간 내 외화획득이 가능한 광물 수출에 역점

– 수단은 남아공,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3위의 금생산국, 2017년 금 생산 105톤을 기록했으며 매년 전체 수출의 30% 차지,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 대상 분야임

– 단 밀수출 성행, 대부분 광산업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전통방식에 의존, 이에 따른 낮은 생산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 현대화, 규모화, 기계화 필요

○ 186만 ㎢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세계 16위)를 관통하는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 보유, 아랍권 식량 창고로 불리며, 사우디, UAE, 쿠웨이트 기업들이 투자

– 넓은 농토로 인해 기계화 진전, 수수, 면화, 참깨, 땅콩, 사료작물 등 재배

– 소, 양, 염소 등 1.1억 마리 이상 가축 사육, 인근 아랍권 국가로 수출 중

– 그러나 2000~2011년 석유 생산기에 농업을 등한시한 결과 관련 인프라 낙후, 현대화, 기계화 필요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농축산광업의 현대화 및 수출산업화 정책에 따라 파생되는 수요 타기팅

–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등과 파트너링을 통해 효과적인 진출 추진

○ 농기계 및 장비, 사료, 사료첨가제, 광산장비, 제련용 화학제품 등 수요 대응

– 농축산광업 분야는 제품 등록(판매승인) 절차가 필수인바 이에 대한 대비 필요

3-3. 보건의료 환경 개선 수요에 맞춘 시장 진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도시화 진전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 확산, 반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 부족 상황 지속
- ○ 건강, 안전 관련 제품군에서 중국산 기피 현상 뚜렷, 한국산 등에 대한 관심 증가
  - 외국 원조사업도 보건 의료분야에 집중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 소비 현대화, 도시화 진전에 따라 건강,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 – 반면, 외화 부족으로 인해 보건의료 제품 수입 및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국산 기피 현상 뚜렷,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 품질을 중시하는 보건의료 분야 특성을 감안, 중국산과 품질 차별화 강조
  - – 한국제품은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현지 평판 활용
- ○ 외국 원조사업, 보건부 의료조달청 입찰 경험 있는 현지기업과 제휴 추진

3-4.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니치마켓 활성화 가능성에 주목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과도정부 안착, 미국발 제재 해제 시 외국지원을 통한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 가능
  - * 현재는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해 서방으로부터의 파이낸싱에 제약
- ○ 미국발 제재 해제 전까지는 국제기구, 중국 및 아랍권 차관 사업에 의존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 과도정부 안정화,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 프로젝트 활성화 기대
  - – 과도정부 출범 후 사우디, UAE, 중국, EU 등이 수단 지원 의사 표명
- ○ 현재는 미(美)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해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제약 존재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 수단 정부, 하기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보유 및 개발에 우선순위 부여
  - * 철도, 발전, 송배전, 신공항, 재생에너지, 수처리, 폐기물 처리 등
- ○ 우리기업의 설계/감리 엔지니어링 역량은 현지 정부, 기관도 우수성 인정
  - * 한국종합기술 신공항 감리 프로젝트 수주(2015), 대한컨설턴트 고속도로 감리 프로젝트 수주(2012)

4 진출 시 유의사항

미(美) 제재에 따른 결제방법 제약

■ **(현황)** 美 경제제재 해제(2017)에도 불구, 테러지원국 지정상태 유지되고 있어 수단 관련 직접 은행을 통한 송금에 제약 존재

- L/C 발행은 일부 공(대)기업에 한정, T/T 불가능, 두바이 등 제3국을 통한 결제가 일반적, CAD, D/A 거래 드물게 가능

■ **(대응전략)** 두바이 등 제3국을 통한 T/T 가능 여부 등 바이어의 결제역량 확인

☞ 단 美 제재로 거래에 큰 문제 없으며, 오히려 신규 진출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작용

현지 선호 커뮤니케이션 관행

■ **(현황)** 이메일보다 SNS, 면대면 상담 선호

- 독립(1956) 전까지 영국 식민지였으나, 바이어 및 일반인 영어 구사 능력 저조(아랍어 공용)
- 업무교신 속도가 느리고 이메일보다 Whatsapp 등 SNS를 통한 교신에 익숙
- 인터넷 사용보다는 면대면 상담 선호

■ **(대응전략)** 면대면 상담 및 SNS 적극 활용

☞ 이메일 교신과 함께 현지에서 선호되는 SNS Whatsapp을 통한 보완 커뮤니케이션 적극 수행, 출장, 두바이 등 인근국 전시회 활용

보건안전 관련 등록 요건

■ **(현황)** 영국식민지였던 영향으로 다소 까다로운 제품 등록제도 운용

- 화장품 및 의약품, 농약, 비료, 사료 및 첨가제, 기술제품 등은 부처별 등록 필요
- 등록에 필요한 서류 다소 까다롭고 등록까지 시간 오래 소요

■ **(대응전략)** 바이어와 협력 및 서류 유의

☞ 관련 분야 제품 등록 경험 바이어 활용, 서류 제출 시 서류 간 수치 일치 등에 유의, 가능 시 국제인증 제출 시 시간 단축

외국기업에 불리한 사법 체계

■ **(현황)** 느리고 불투명한 사법 행정

- 무역분쟁 발생 시 수단 법정에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외국인에 다소 불리
- 모든 소송서류는 아랍어로 진행되며, 잦은 판사 교체, 불투명한 사법행정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통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음

■ **(대응전략)** 계약체결 시 분쟁 발생에 대비

☞ 주요 사안에 대한 책임 명확화,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관할 법원, 중재위 포함) 등을 계약서에 명확화

수입자 재무제표 미공개

■ **(현황)** 수단 기업 재무제표 확보 곤란

- 수단, WTO 미가입국, 주식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재무제표 확보 곤란
- 재무제표가 있어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산, 부채, 매출액 등 기본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관행
- 다수 자회사, 관계사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객관적 회사정보 파악이 어려움

■ **(대응전략)** 회사 실사, 등기 여부 파악

☞ 방문 및 등기여부 확인 통한 회사 평가

인터넷 해킹 통한 무역 사기

■ **(현황)** 최근 3년간 동일 수법의 인터넷 해킹 무역 사기 2회 발생

- 해커가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 간 이메일 해킹, 해커 계좌정보를 국내기업에 보내 자금 수수
- 바이어는 국내기업을 의심하며 거래 단절
- 1회는 실제 사고 발생, 1회는 대응 통해 방지

■ **(대응전략)** 수출대금 받기 전 바이어와 복수의 수단을 통한 계좌정보 확인

☞ 이메일 외 전화, SNS(Whatsapp, Telegram) 통한 계좌정보 이중 체크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8708 등	수입관세율(%)	10% 내외
자동차 부품	수입액('18/US$백만)	2억 달러 내외	대한수입액('18/US$백만)	20(HS8708 등)
	선정사유	한국산 승용차 기준 차량점유율 60% 이상, 높은 노후 차 비중,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수요 높은 상태		
	시장동향	조립생산용, After마켓용, 신품, 중고품 시장 다양하게 분포 한국산 브랜드 다수 진출, 경쟁 상태		
	경쟁동향	수단 국내산, 한국, 중국, 터키, UAE산 경쟁 심화		
	진출방안	면대면 상담 선호 감안, 두바이 등 인근국 유명 전문전시회,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유력 파트너 발굴		
품목명 2	HS Code	8431 등	수입관세율(%)	0~10%
Mining(광물) 장비, 화학제품	수입액('18/US$백만)	1억 달러 내외	대한수입액('18/US$백만)	21(HS8431 등)
	선정사유	수단 정부 및 기업, 2011 남수단 분리(유전 상실)후 석유 대체 수익원 확보 위해 광산 개발에 박차, 금(아프리카 3위 생산) 등 생산 위한 탐사, 채굴, 운반 장비, 정밀화학 제품 수요 증가세		
	시장동향	광산장비, 화학제품 수입 급격한 증가세, 전량 수입 의존		
	경쟁동향	한, 중 및 UAE 등을 통해 유입되는 중국, 터키산 등 경쟁		
	진출방안	광업, 무역관련 정부승인 유력 에이전트와 파트너십 필수		
품목명 3	HS Code	9018 등	수입관세율(%)	0~10%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액('18/US$백만)	6억 달러 내외	대한수입액('18/US$백만)	9(HS9018 등)
	선정사유	주사기 등 일부 소모품 제외한 전량 수입 의존, 진단기기, 소모품, 기기에 걸쳐 중국산 불신, 한국, 유럽산 선호		
	시장동향	獨, 日, 인도산 중심,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 증가세		
	경쟁동향	수입시장점유율은 인근국인 사우디, UAE 등 인근국 경유 수입과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순		
	진출방안	두바이 등 인근국 전시회, 현지출장 통한 유력 파트너 발굴		
품목명 4	HS Code	8431 등	수입관세율(%)	0~10%
건설 중장비 및 부분품	수입액('18/US$백만)	1억 달러 내외	대한수입액('18/US$백만)	3(HS 8431 등)
	선정사유	도시화 진전으로 건설중장비 수요 꾸준, 전량 수입 의존		
	시장동향	현대, 두산 기진출, 한국산 인지도 높지만 여전히 가격 중시		
	경쟁동향	Attachment 류의 경우 중국산점유율이 월등히 높고, 이외 UAE,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터키, 미국산 등 경쟁 중		
	진출방안	정부와의 네트워크, 결제 역량 면에서 유력 에이전트와 협력		

품목명 5	HS Code	3901-3904, 3907 등	수입관세율(%)	3%
기초플라스틱 원료	수입액('18/US$백만)	2억 달러 내외	대한수입액('18/US$백만)	2(HS 3907 등)
	선정사유	생활용품, 가구, 파이프, 포장재 등 저가의 기초 플라스틱 제품 사용되고 있으나 관련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시장동향	수단 유일 플라스틱 원료 제조사인 Khartoum Petrochemical이 일부 공급, 나머지는 수입 의존, 수요 증가세		
	경쟁동향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인근 아랍권국가와 한, 중, 대만산 등 아시아 제품이 경쟁중		
	진출방안	중동산과 경쟁 위해 수단 표준협회(SSMO) 등록 외, 경쟁력 있는 가격, 결제조건 제시 및 현지화 필요		
품목명 6	HS Code	8701 등	수입관세율(%)	0%
농축산 장비 및 용품	수입액('18/US$백만)	5억 달러 내외	대한수입액('18/US$백만)	1(HS8701 등)
	선정사유	아랍권 최대 농토(나일강 주변 약 5천만 에이커), 1.1억 마리 이상 가축 사육, 정부 현대화 추진 정책으로 수요 증가세		
	시장동향	농축산 관련 관개, 기계화, 사료, 비료, 농약 등 현대화 수요 증가세, 반면 관련 제품 전량 수입 의존 중		
	경쟁동향	수단 최대공기업인 GIAD, DAL 등 참여, 농축산은 수단 GDP의 30% 이상 차지하는 최대산업, 관련 장비 및 부품은 영국, 인도, 러시아, 터키산 등이 주로 경쟁 중		
	진출방안	인근국 전시회, 현지 출장 통해 정부 입찰 경험, 전국적 판매, A/S 역량을 갖춘 유력 파트너 발굴		
품목명 7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40%
화장품 및 피부미용 기기	수입액('18/US$백만)	5천만 달러 내외	대한수입액('18/US$백만)	4
	선정사유	향수 및 오일류, 기초화장품, 헤어제품 일부만 현지 생산, 대부분 수입에 의존, 한국산 인지도 태생 중인 상태		
	시장동향	미백 등 스킨케어 제품, 피부미용 기기 수요 존재		
	경쟁동향	UAE, 터키 등 인근 이슬람권 국가, 중국산 수입이 대부분, 일부 유럽산 제품 경합 중으로 아직 한국산 점유율은 미미		
	진출방안	화장품, 미용기기 정부 기관 등록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와 제휴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IT 솔루션	선정사유	재무회계, 관세 행정 분야 전자정부 추진 수요, 전자신분증, Debit 카드 도입 확대 계획 존재
	시장동향	외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중소형 프로젝트 중심 추진
	경쟁동향	두바이,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및 유럽계 기업 진출 활발
	진출방안	관련 정부 기관 프로젝트 정보 파악 및 현지 출장, 면대면 상담을 통해 관련 정부 및 유력벤더와 파트너십 추진
품목명 2		
인프라, 플랜트 건설/ 엔지니어링	선정사유	각종 제조공장, 철도, 전력(발전, 송배전), 신공항, 수처리, 소각로 건설 프로젝트 존재, 한국 건설, 엔지니어링사의 우수한 이행 능력인지
	시장동향	열악한 외환, 재정 부족에 따른 정부 예산 제약,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서방으로부터 파이낸싱, 차관 제약, AfDB 등 일부 MDB 또는 중국, 아랍계 차관에 의존, 일부 대기업의 경우 자체 파이낸싱 통해 공장 신축 확장 추진, 한국기업 도로, 공항 엔지니이링 참여 이력 보유
	경쟁동향	2천년대 초까지 중국진출이 활발했으나, 남수단 독립 후 석유 감산으로 중국 진출 감소, 터키 기업 등과 경쟁
	진출방안	중국, 아랍권 차관, MDB파이낸싱, 민자 프로젝트 니치 시장 공략, 현지 유력 건설엔지니어링 사와 제휴 필요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지사화사업

○ 상기 타깃 분야 기업 수요에 대응, 연중 전담직원 배치를 통한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상담, 출장, 성약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계약 전 전 과정을 밀착 지원

카르툼 국제박람회 한국제품 홍보관 참가(2020년 1월)

○ 수단 내 최대 종합박람회로 수단 정부 협조하에 국가관 참가 예정

○ 한국기업 100여 개사 샘플, 브로셔 전시 통한 잠재 유망바이어 발굴

현지 대기업과 협력, 수단 제조업 육성 정책 연계사업 추진(연중)

○ 수단 대기업의 기자재, 장비 소싱 대응 및 중소형 플랜트 수출 지원

* GIAD(자동차), CTC(가전), DAL(건설중장비, 차량, 식품류 등), 화학, 의료 등 타기팅

수단정부의 농축산업, 광산업 육성 정책 대응 마케팅 지원(연중)

○ 농축산업 기계, 장비, 광산업 관련 장비, 화학제품 등 타기팅

한국 내 전문전시회, 수출상담회와 연계한 구매사절단 파견(연중)

○ 자동차 부품, 소비재, 농축산업 등 타깃 분야 바이어 집중 파견(50개사 이상), 국내기업과 상담 및 사후 지원을 통한 수출성약 지원

* 건축자재 – 경향하우징페어(2월), 의료기기 – GBMP(3월), 소방전(5월), 조명 – LED엑스포(6월), 자동차 부품 – KOAA쇼(10월), 인프라건설 – 글로벌프로젝트 플라자(5월) 등

공공 조달 및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지원(연중)

○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에 착안, 재원이 확보된 공공 조달 분야 진출 강화

* 국내 개최 건설플랜트 발주처 초청사업(글로벌프로젝트 플라자 등)에 정부 구매책임자, 벤더 초청

○ 국제개발은행(AFDB, WB, AIDB 등), 중국, 아랍권 재원 확보 프로젝트 및 기존 프로젝트와 연계된 프로젝트 수주 지원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과도정부 출범 후 2년 차 돌입	연중	2019년 9월 출범
민군합동 과도정부 의회 구성	2020.1월	
과도정부-지방 군벌세력 간 평화협상 추진	2020 상반기	과도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예정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미국과 협상 개시	미정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으로 기대감 상승

* 주 : 수단은 5년마다 대선 및 총선 실시, 2020년 선거 예정이었으나 2019년 4월 쿠데타에 이은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2019년 9월), 향후 39개월간 과도정부 운영 후 선거 예정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1 예산안 발표	2020.2월	
WTO 가입 추진	연중	
미(美) 경제제재 해제(2017년 10월) 및 테러지원국 지정(1993년~현재) 해제 시 관련 법규 정비	미정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종합	각종 소비재, 산업재 등 종합 품목	카르툼국제박람회 (Khartoum International Fair)	2020.1월 카르툼 Fairground
광산업 (MIning)	광산 기계, 장비, 제련용 화학제품 등	수단 광물산업전 (Mining Expo&Forum)	2020.4월 카르툼 Fairground
제조업	기계, 원부자재 등	수단 제조산업전 (Sudan Expo)	2020.5월 카르툼 Fairground
건설	건설기계 및 장비, 자재, 서비스 등	수단 건축전 (Sudan Build 2020)	2020.10월 카르툼 Fairground
플라스틱	플라스틱 완제품 및 원료	수단 플라스틱전 (Nile Plast)	2020.11월 카르툼 Fairground

부록 對수단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Ⅰ. 한-수단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수단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전략적 가치와 뚜렷한 2大 발전 테마* 보유, 시장선점 전략 필요

* 민군합동 과도정부 안착/미(美)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가능성

수단과 경협 매력요인과 잠재력

○ **(전략적 가치/잠재력)** GDP, 인구, 국토면적과 자원, 위치 면에서 아프리카 대표 시장

– 인구 42백만 명(아프리카 6위, 젊고 이슬람 기반 윤리 수준 높은 인력), GDP(2017년 기준 아프리카 3위), 186만 ㎢(아프리카 2위, 세계 16위)의 광활한 영토에 풍부한 인적, 천연자원 보유

* 2017년 기준, GDP 1,230억 달러로 남아공, 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 3위, 단 2018년은 자국화폐 평가절하로 달러화 기준 GDP 380억 달러로 낮아진 상태

– 나일강이 국토 관통, 비옥하고 광활한 아랍권 최대농지 보유, 금 생산 아프리카 3위

* 전체 아랍권 농지의 30% 보유, 가축 사육두수 1.1억 마리 이상으로 아랍권 농업 투자처

* 2017년 금 생산 100톤 돌파, 남아공,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3위 규모, 밀수출 감안 시 실제 생산량은 250톤 이상으로 추정, 금 외 철광석, 구리 등 풍부한 자원 보유

○ **(성장성/테마)** 뚜렷한 양대 발전 테마를 보유한 성장 기대 시장

– 상기 막대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수단은 미국발 제재 등으로 인해 저평가 상태, 아프리카 대표적인 미개척 유망시장으로 가치 및 높은 성장 가능성 보유

–(테마 1) 30년 독재 축출, 2019년 9월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에 따라 새시대(민주화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 상승, 과도정부 안착 시 경제 급반등 가능

–(테마 2) 20년간 이어진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2017년 10월), 테러지원국 지정(1993년~) 해제 시 서방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금융지원, 부채 탕감, 외국인 투자 급증 가능

○ **(대한(對韓) 호감도)** 과거 대우진출, 한국기업 선전 및 한류 확산으로 높은 대한(對韓) 호감도

– 수단은 1980~1990년대 대우그룹의 첫 해외 투자처, 대우그룹은 수단 내 다양한 제조,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수 단내 최대 외투기업 지위 차지, 현재는 제약법인만 남은 상태지만 아직도 많은 수단 기업인들에게 대우(한국)는 수단 산업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고마운 기업으로 기억되고 있음

* 1980~1990년대 대우그룹의 대(對)수단 투자 업종 : 섬유, 피혁, 타이어, 의약품(제조), 은행, 호텔(서비스)

– 지금도 자동차, 가전, 의약품 분야 한국기업 점유율이 1~2위에 달해 한국제품은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수단 기업인들에게 널리 인식

– 최근 한국 드라마, K-Pop 인기 확산되며, 한국 국가브랜드 역시 지속 상승세

수단 경제 2大 테마 :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과 미국발 제재 동향

◈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으로 새시대(New Era)에 대한 희망, 기대감 상승

- 30년 독재정권 축출, 2019년 9월 국제사회 지지 속에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
- 과도정부 안착 시 민주화 진전, 외국지원 통해 경제 급반등 예상

최근 정국 급변 경과	– 2018년 12월~ :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반정부, 정권 퇴진 요구 시위 확산 * 경제위기 원인 : △2011년 남수단 독립 시 유전의 75% 남수단 귀속에 따른 외화 획득원 급감, △2090년대 이후 美 경제제재, △30년 독재정권의 부패와 무능 – 2019년 2월 : 舊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반정부 시위 확산 – 2019년 4~7월 : 군부 쿠데타로 前 대통령 축출, 민정 이양 요구 시위확산 및 유혈 진압 – 2019년 8~9월 : 국제사회 중재 속에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
민-군간 과도정부 운영 합의 개요	– 2019.9월부터 39개월 동안 민군합동 과도정부 운영 후 선거 실시 – 과도정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표자회의(Soverign Council) 15인 구성 * 15명중 야권연대, 군 각각 7명 추천 및 중립인사 1명 – 민간 중심의 내각 및 과도 의회 구성, 유혈사태 책임자 처벌 위한 조사 실시 * 총리 포함 18명 내각 임명, 외교장관 등 4명의 여성장관 포함 * UN 경험 총리, WB 경험 재무장관 등 국제, 경제감각 갖춘 내각 구성 – 과도정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지방 군벌(반군) 세력과 평화협상 추진
의미와 향후 전망	–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반정부시위가 민간중심의 과도정부 수립으로 성취 * 아랍, 서방, 아프리카 등 관련국 모두가 과도정부 체제에 대한 지원의사 표명 중 – 39개월간 과도정부 안착 및 합법적 선거 실시, 그 과정에서 미국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이어질 경우 아프리카 대표국 중 하나인 수단의 급격한 발전 가능

◈ 미(美) 제재 동향과 해제 가능성

- 미국은 1990년대 수단의 다르푸르 내전 시 학살, 테러 단체 지원 등의 혐의로 경제제재(1997~2017년 10월) 및 테러지원국 지정(1993~현재)
- 2017년 10월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무역투자, 금융거래 관련 제재가 명시적으로 해제됐으나 외화공급원 부족과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로 경제제재 해제 효과가 발현되지 못한 채 경제위기 심화
  * 경제제재 해제 골자 : △미-수단간 무역 허용, △미국인의 대(對)수단 투자허용, △미국인의 수단 내 석유/화학산업 진출 허용, △수단 내 기관/개인과 금융거래 허용
- 제재해제 효과가 본격 발휘되기 위해서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필수, 수단정부도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대외원조 금지, ▲방산물자의 수출 및 판매 금지,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국제금융기관(IMF, WB)의 대주재국 자금 공여 및 부채탕감 관련 논의 반대투표 등의 제재 조치가 유지되며,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는 별도 리뷰 예정
- 2018년 1월 미(美)-수단 양측은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에 합의한 바 있어 과도정부의 하기 사항 시행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 예상
  * 미(美)의 6개 핵심 요구 사항 : ① 대(對)테러 방지 협력강화, ② 종교, 언론 자유를 포함한 인권 개선, ③(분쟁지역 등에 대한)인도적 접근 강화, ④ 내부 적대행위 중단, 평화 정착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⑤ 테러 관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소명, ⑥ 북한 관련 UN 안보리 제재 준수
-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으로 제재해제 기대감이 커진 상태로, 제재 해제 시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원조, 부채탕감 확대로 경제 급반등 예상

주요국의 대(對)수단 경협 현황

○ 수단 주변국 및 주요국, 수단의 중동아프리카 지역 내 전략적 가치, 잠재력 및 뚜렷한 경제시스템 변화 가능성(발전 테마 보유)에 주목

– 아랍권(사우디, UAE, 터키, 카타르) 및 EU,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도 수단 정국 상황에 주시, 관여하며 대(對)수단 경협확대 추진

※ 2019 수단사태를 보도하면서 뉴욕타임즈는 수단을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중 하나'**, 로이터는 **'아프리카, 중동으로 가는 Gateway'**로 표현

○ 민군합동 과도정부의 안정화, 미국발 제재해제 확대 여부가 경협 확대의 관건

– 과도정부 출범 후 중국, EU, 아랍권 국가들이 대(對)수단 지원확대 의사 표명

– 2大 테마(과도정부 안착,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실현 시, 남수단 독립 이후 주춤했던 외국기업, 기관의 대(對)수단시장 진출 러시 예상

주요국의 대(對)수단 경협 현황

주요국	경제 협력 전략 및 진행 사항
중국	• 2000년대 이후 수단 최대 경협국, 2018년 수단 전체 수입의 23% 차지, 이는 공식 통계 기준, 두바이 경유 중국산 수입품 감안 시 실제 중국산 비중은 70% 이상 추정 • 중국은 1990년대 CNPC(중국석유공사)를 필두로 수단의 석유개발, 송유관 공사 등에 투자하며, 대(對)수단 진출 본격화 • 이후 2011년 남수단 독립 시 유전의 75%가 남수단에 귀속, 대(對)수단 투자가 정체, 감소세에 있으나 여전히 대(對)수단 최대 교역투자국 지위 유지 * 주요 진출 분야 : 석유화학(정유, 플라스틱 원료), 광산, 제조(자동차조립, 섬유) 등
일본	• 무상원조 중심의 경협 추진, 30여 명의 봉사단원 파견 및 개발원조 사업 전개 • 직접진출은 미미하며, 에이전트십 계약을 통한 시장 진출 중 * 일본기업 에이전트 운영 : 토요타, 미츠비시(자동차), 토시바(가전)
EU	• 지리적 인접성, 과거 식민지 경험, 난민 문제 공조 등의 목적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수단과 정치경제 협력에 적극적 * EU 기업 에이전트 운영 : Perkins(발전기), Benz(자동차), 제약사 다수
아랍권	• 종교, 문화, 역사적 경험 공유(이슬람), 군사, 농업 협력 목적으로 사우디, UAE, 카타르, 터키 등이 수단과 협력에 적극적 • 주요 진출 분야는 농축산 및 광업 분야 * 사우디, UAE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30억 달러 규모 공동 원조 계획 발표, 5억 달러는 현금, 나머지는 현물 지원(현금 지원분 5억 달러 기 예치 완료)
미국	• 1990년대 이후 지속된 대(對)수단 제재로 인해 직접 진출은 미미 • 수단기업과 에이전트 계약을 통한 제품 공급 중, 제재해제 시 진출 러시 예상 * 미국기업 에이전트 운영 : Catapillar(중장비), John Deer(농기계), 피자헛(식품) 등
기타	•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석유, 제조업 분야 진출

한(韓)–수단, 과거 한국은 수단의 최대 경협국가, 2000년대 들어 경협 정체

○ 1976년 수교 이후 관계 증진, 2016년 수교 40주년 기념

* 수단은 1969년부터 15년간 사회주의 정권 출범, 북한과 가까웠으나 현재는 북한과 관계 단절, 현재 수단 내 북한대사관 없으며 북한과는 교역 전무

○ 1980~1990년대 대우그룹은 수단을 중동-아프리카 잇는 제조거점으로 인식, 대규모 투자 단행하여 한국은 수단의 최대 경협국가 위치 차지

– 수단은 대우의 최초 대규모 해외 투자처, 제조, 금융, 서비스 분야 2억 달러 투자 통해 수단 최대 외투기업 지위 차지하며, 수단 산업화에 주도적 역할 수행

– 현재까지 기업인 다수가 대우(한국)을 자국 산업화에 기여한 고마운 존재로 기억

* 대우그룹 수단 내 비즈니스 수행 분야 : 타이어, 섬유, 피혁, 의약품(제조), 은행, 호텔(서비스)

* 현재는 제약법인만 유지, 타 법인은 매각 및 철수 상태, 제약법인은 수단시장 점유율 2위 기록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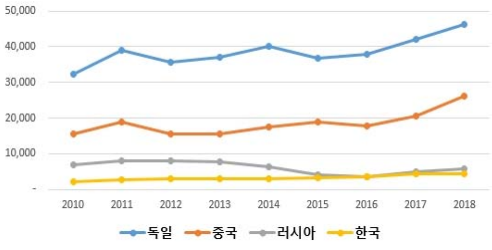
○ 대우그룹 해체 후 양국간 경협 규모 축소 후 정체 상태, 그러나 한국 기업 제품은 현지시장에서 여전히 호평,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일반적 인식

* LG, 삼성(가전), 현대기아차(승용차), 두산(중장비), 포스코대우(의약품) 현지시장 점유율 1, 2위

○ 높은 잠재력과 성장 테마, 대한(對韓) 호감도 감안 시 주요국 대비 경협 확대 여지 높음

한국-수단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수단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액



– 2018년 수단은 전체 78억 달러 수입. 이중 중국, 인도, UAE, 사우디 4개 나라가 전체 수입의 53% 차지, 대한수입액은 1.1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터키,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점유율 13위 기록 중

* 중국 23%(1위), 인도 11%(2위), UAE 10%(3위), 일본 2%(11위), **대한민국 2%(13위) 수입**

※ **그러나 실제로는 美 제재로 인해 수단 수입 다수가 두바이를 경유해 수입되는 점 감안 시 한국산 점유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승용차, 가전, 의약품 점유율 1,2위)

2. 대(對)수단 한중일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7년 기준, 2019년 9월 추출)

– (수출경합도) 대(對)수단 수출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3개 품목, 한국과 일본도 3개 품목이 겹침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 국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가전 및 전기 제품	유기화합물	플라스틱류
중 국	기계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가전 및 전기 제품	섬유의류	철강 및 철강제품
일 본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타이어 등 고무 제품	케이블류	가전 및 전기제품

3. 대(對)수단 투자진출 현황(2017년 기준)

– 미국발 경제제재(1997~2017년 10월), 테러지원국 지정(1993~현재)으로 인해 서방의 직접투자, 차관 제공에 제약 존재. 이로 인해 수단은 중국 및 아랍권 투자에 의존 중

– 2000~2011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석유 투자가 주를 이뤘으나 유전 상실로 신규 투자 급감

* 2000년대 초 중국인 체류자 수 3만 명, 현재 6천여 명으로 감소한 상태

* 한국인 체류자 역시 90년대 대우 진출 시까지 2~3백여 명에 달했으나 현재 50명 내외로 감소

– 수단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10억 달러 내외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나, 주로 아랍권의 농업 및 금광 개발, 중국의 일부 제조업 투자에 편중된 상태임

나. 한-수단 상생협력 비전 도출

수단의 산업화 정책 수요, 한국 제조업 기반 산업화 경험 공유

* 상생협력 기반의 산업화 지원 모범사례 창출 및 중동-아프리카로 확산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부한 양질의 인적자원 보유,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과 美제재해제 가능성이라는 뚜렷한 양대 발전 테마 보유

○ 아프리카 최고 수준의 교육 정도, 이슬람에 기반한 윤리의식 갖춘 젊고 풍부한 인적자원은 수단 최대 강점, 나일강이 관통하는 광활한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도 강점

- 높은 중고등, 대학진학률에 더해 인구의 80%가 이슬람, 특히 세속화되지 않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shariah law 기반)이 지배하는 사회로 비교적 높은 도덕, 윤리의식 보유
  * 수단 중고등학교 진학률 : 36.9%(2006) → 44.4%(2016)으로 급증세, 특히 수도 카르툼의 경우 대학진학 위한 과외가 성행할 정도로 높은 교육률 보유
- 단, 더딘 경제발전으로 인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심각, 이들 귀국 및 기존 인재와 결합 시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 가능

○ 2개의 뚜렷한 발전 테마 보유, 단순한 잠재력이 아닌 동 테마 실현 시 단기간 내 경제 급발전 예상

- 민군합동 과도정부 안착 시, 민주화 진전 및 미국발 제재 해제로 연결 기대
- 미국발 제재해제 확대 시 서방으로부터의 차관 및 원조, 부채탕감, 투자유치 가능

경상수지 적자 해결, 석유 대체 위해 제조업 육성, 농축산광업 현대화 절실

○ 2011년 남수단 독립 시 석유 자원 상실, 석유를 대체할 외화획득원 절실

- 남수단 독립 시 보유유전의 75% 상실, 수출의 90% 이상 차지하던 석유 수출이 급감한 상태로 이후 외화 부족, 국가부채 급등, 환율, 물가 폭등으로 위기 심화
- 현재는 금이 전체 수출의 1/3을 차지하며 최대 수출품으로 부상했으나 외화난 해결에는 역부족, 대체 수출산업 육성 절실

○ 수단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독려하는 가운데 공기업, 대(중견)기업 중심으로 제조업 신규(확장) 진출 수요 다수 포착, 이들 대부분이 한국기업과 협력 희망

- 수단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2019) 골자로 제조업 육성 및 농축산광업 수출산업화 추진 중이나 자본, 기술 및 경험 부족으로 외국기업과 협력 필수
- 제조업 중심의 경제 기적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한국 및 한국기업과 협력 희망

수단의 협력 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및 부품	◈ **자동차 및 가전 조립 등 제조업 육성** - 관련 설비, 부품 및 중간재, 플랜트엔지니어링 수요 ◈ **농림축산, 광산업 현대화 및 수출산업화** - 농림축산 기술협력, 관련 기계 및 장비, 부자재 수요 ◈ **보건의료 환경 개선** - 질병퇴치 지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족 해소 ◈ **사회전반 ICT 도입 확대** - 전자정부, 결제 시스템 분야 ICT 시스템 도입 추진 ◈ **만성적인 전력, 연료 및 SOC 인프라 부족**
농림축산	보건의료	
광산업	제조업 기타	
ICT	에너지/인프라	

수단의 권역별 협력 수요

권역	내용
아시아	• 수단의 산업화 지원 및 의료, 교육, 인프라 분야 원조 희망 • 한·중·일 외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가 협력 대상국
아랍	· 아랍권으로부터 농축산, 광산업 투자 및 교역 확대 희망 ·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의 현금, 석유 지원이 수단경제의 버팀목 * 수단군은 사우디, UAE가 지원하는 예멘 내전에 정부군 측으로 참전 중, 터키와 군사협력 강화 및 경협 확대에도 관심
EU	· 미국 제재 상황에서 서방과의 협력확대 창구 역할 기대 · EU는 아랍권과 함께 수단에 대한 정치경제 전반 영향력 행사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북유럽 국가들이 수단시장 진출 활발 - EU의 난민 문제 해결 협조요청 건에 대한 반대급부 기대 * 아프리카, 시리아 난민 상당수가 수단을 거쳐 중동, 유럽으로 이동
미국	· 미국발 테러지원국 해제가 수단 정부의 경제 분야 최대 관심 사항 * 제재해제 통해 무역투자 확대, 금융거래 제한 해제, 원조 및 차관, 부채탕감 기대

우리나라는 과거 수단의 최대 직접투자 국가이자 높은 호감도-공감도 보유, 경협확대에 유리한 여건

※ 식민지, 내전, 가난이라는 양국 간 동질성 보유

– 이를 극복하고 세계 6대 교역국으로 성장한 경험 공유 시 경협 확대에 유리

○ 제조업 중심 성장 경험을 보유한 한국에 대해 매력적인 경협 파트너로 인식

– 과거 대우그룹의 대규모 투자 경험 및 최근 현대기아차, LG, 삼성 가전 등의 선전으로 한국 제조업 우수성 널리 인식, 한국제품은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나다는 일반적 평가

– 제조업 외 농축산, 문화 분야 한국과의 교류 확대도 희망

○ 제조업 확장 위한 한국기업과 협력 희망 수요 다수 포착

– 한국산 제조설비, 원부자재 도입 통한 제조업 신규(확대) 진출 희망

– 2000년대 이후 중국식 진출방식(현지인 고용 및 기술전수에 극히 소극적)에 대한 불만이 확산된 가운데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수요 증가세

수단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협력 우선 산업		아국 역량 및 현지 평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및 부품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세계 최상위권으로 인식** – 수단, 한국을 제조업으로 산업화 이룬 제조강국으로 인식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년 5년 연속 1위 ◈ **경제발전 경험 공유 및 전파 역량보유** – 식민지, 내전, 가난이라는 동질성 및 극복 경험 보유 – KSP, 한류, 높은 전문인력(대학졸업자 68%) 강점 ◈ **에너지/SOC 인프라 분야 오랜 중동시장 경험, 아프리카~중동 있는 프로젝트 시장 진출 유리** ◈ **세계적인 ICT 인프라, 기술 순위** – IT/정보통신 기술력 세계 11위(Business Insider, 2017년 6월)
농림축산	보건의료	
광산업	제조업 기타	
ICT	에너지/인프라	

한–수단 미래비전 및 상생협력 전략으로서 K패키지

※ 수단 정세 급변에 대응한 K패키지 추진 검토

– 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상생협력 기반의 K패키지 모범사례 창출

ㅇ 급변하는 수단 상황을 주목하며 경제한류, 상생협력 기반의 포괄적 경협 추진

– 수단 경제위기에 이은 반정부시위–쿠데타로 30년 독재정권 축출(2019년 4월)–국제사회 지원 속에 민군 갈등을 봉합하고 민군합동 과도정부 출범(2019년 9월)으로 정세 안정 진행 중, 시장 상황에 주목 필요

– 과도정부 안착, 美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 수단 경제 급부상 가능, 시장상황에 주목하며, 경제협력 선점 위한 교류 활성화 검토

ㅇ 양국 경협을 통해 阿 중동 국가와의 상생협력형 경협확대 모범사례로 육성

– 과거 대우그룹의 수단 산업화 선도 경험, 최근 한국 자동차, 가전, 의약품의 선전 및 한류(드라마, K–Pop) 확산으로 양국 경협에 유리한 여건 기 조성

– 수단의 산업화 수요 – 한국 산업화 역량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기업 차원의 경제주체별 상생협력형 K–패키지 추진

– 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상생협력 기반 K–패키지 모범사례 창출로 인근국 확산

Ⅱ.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경협·문화 한류로 친기업 환경 구축

1 제조업 육성을 축으로 한 산업화 협력

○ **(정책 수요)** 석유대체 수출산업화, 고용 확대 위해 제조업 육성 절실

– 남수단 독립과 유전상실(독립 전 보유유전의 75% 상실)로 외화 부족 및 경제난 심화

– 외화공급원 확대 및 석유 수입 대체를 위해 제조업 육성 추진

※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19) 재검토 및 경제개혁, 구제 계획(Economic Rescue Plan) 마련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골자 : 정부지출 축소, 수입억제, 수출 다변화(제조업 육성 및 농축산광업 수출산업화, 민간 경제 활성화

* 2019년 출범 과도정부는 11월경 경제위기 해소 위해 경제개혁, 구제 계획 발표 예정

: 정부 예산 및 지출 조정, 은행 구조조정, 물가 통제, 세재 개편, 부패 척결, 내년 6월까지 공식, 비공식 환율 일원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기업 수요)** 공기업 및 대(중견) 기업 중심의 제조업 신규(확장) 진출 희망

– 제조업 진출을 희망하나 자본, 기술, 설비 부족으로 외국기업과 협력 필수

– 중국식 진출방식에 대한 거부감 팽배, 한국기업과 협력 희망 증가세

* 중국 인력 대거 입국에 따른 고용창출 미흡, 기술 미공유 등 폐쇄적인 경협방식

– 한국산 생산설비, 반제품 및 중간재 공급기업과 협력한 조립, 가공 위주의 제조업 확대 희망, 상생협력형 마케팅에 적합한 여건 조성

<예시> 최근 2년간 파악된 수단기업의 제조업 신규/확대 진출 수요

기업명	진출/확대 분야	비 고
GIAD	자동차조립(CKD)	수단 공기업으로 현대차 조립 생산 확대
DAL Motors	자동차조립(DKD)	수단 최대 기업그룹이자 기아차 딜러, 조립공장 완공(2017년 9월)
CTC	백색가전	LG 백색가전 조립공장 생산, 모델 확장 수요
Gufran	도축공장	Poultry(닭) 가공 한국 설비 도입 희망
Abbas Yasin	타이어	과거 대우 타이어공장 보유 시 공식 딜러로 자체공장 설립 추진, 한국설비 도입 관심
Morouj/Alkholafa	밧데리	수단 내 대표 유통기업으로 밧데리 제조공장 설립 추진
Central Lab	의료기기	한국산 생산설비, 반제품을 도입하여 신속 진단키트 공장 설립(2018.2월)
Benan Rope	플라스틱 로프/테잎	한국산 설비 및 스페어파트, 원료 다수 사용 중
Avamed Medical	주사기 및 바늘	한국산 설비 사용 중, 공장 확장 위해 한국산 설비, 원부자재 소싱 희망
Moawja	포장/인쇄	독일산 기계 사용 중이나 한국산 기계, 원료 구매 관심

○ **(협력 방안)** 제조설비, 중간재 공급을 통한 제조업 육성 지원 및 시장 확대 추구

– 우선 민군합동 과도정부 안착 여부 주시, 안정화 진행 시 신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 공기업 등과 협력한 공공 및 민간분야 제조업 협력의 구체적 수요 발굴

* 수단 측 주요 협업 대상 기관 : 수단 산업부, 산업재상의, 수입상의, 경영자연합, 각종 공기업

– 육성 희망 제조업 분야 및 분야별 구체적 수요 조사, 국내기업 전파 및 '한–수단 제조업 협력 포럼/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양국 정부, 기업인간 협력 수요의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

* 협력 수요 예시 : 기계설비 및 중간재, 부품소재 및 원료 공급, 플랜트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등

– 2018년 10월,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 1주년을 맞아 '한–수단 비즈니스(산업화) 협력 포럼' 추진, 양국 정부, 기업 관계자 관심 모은바 있으며, 과도정부 안착 시 제조(조립생산 포함) 분야 협력에 보다 초점을 맞춘 협력 기회 마련

'한–수단 비즈니스(산업화) 협력 포럼(2018년 10월, 카르툼) 사례

◈ 추진 목적 : 2017년 10월 미국발 대(對)수단 경제제재 해제 1년을 맞아, 제재 해제 효과 본격화에 대비한 시장 선점 추진 목적, 제조, 농축산광업 등 산업화 협력 증진에 초점

◈ 추진 방식 : (1일 차) 양국 주요 기관과 협력한 포럼 및 상담회 개최
(2일 차) 산업시찰 및 외투기업과 간담회 진행

- 한국 측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주수단 대사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플랜트산업협회, 명지대 중동연구소 협업
- 수단, 국제기구 측 : 수단 산업부, 산업재상의 공동 주최, 수입재 상의, 외교부, AfDB 등 협업

◈ 추진 성과 : 한국 측 14개 기업, 수단 측 200여 개사 참가, 수단 산업부 장관 등 장관급 3명, 부장관 2명, 수단 수입상의 회장단, GIAD(수단 최대공기업), 송유관공사, 조폐공사, 내무부 구매관, 방송 2개, 신문 3개사 등 참가

* 한국 참가 2개사 수출성약, 양국 간 산업화 협력 및 증진방안 모색, 양국 관심 사항 공유 확산

기관 간 강점을 활용한 협업 추진

* 단순 예산 협업 넘어 기관 고유 기능의 강점을 활용한 유기적 협업 수행을 통해 유력 바이어, 유관 기관 인사 다수 유치 및 사업 성과 제고

기관명	수행 역할
무역관(KOTRA)	○ 사업기획, 포럼 및 1:1 상담회 총괄 – 협업기관 섭외, 국내기업 모집 지원
플랜트산업협회	○ 국내기업 모집, 지원 총괄
주한수단대사관	○ 수단 주요 인사 초청 협력, 대사 환영사 및 관저 환영 만찬
수단 산업부	○(공동주최) 한 사절단 입출국 지원, 장관 축사, 산업시찰(10월 4일) 및 네트워킹 오찬(10월 4일 석유부 클럽) 지원
수단 수입상업 상의, 수단 산업재 상의	○(공동주최) KOTRA무역관과 MOU 체결(산업재 상의), 수단기업 모집 지원

2 KSP/ODA를 활용한 상생협력 여건 조성

○ **(정책 수요)** 한국 산업화 경험 전수에 관심, 외화공급 부족 상황으로 외국지원 절실

– 반면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해 서방 등으로부터 개발원조에 제약

* 중국, 아랍권 차관에 의존하고 있으나 한계, 제재해제 동향 등에 주목하며 개발원조 확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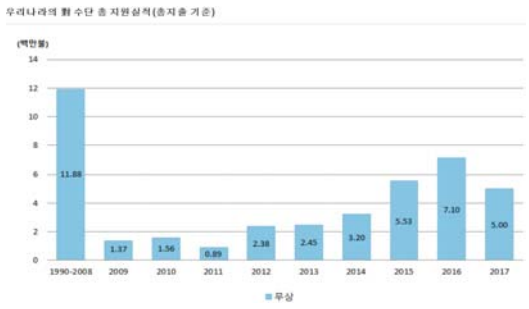
– 수단 측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화, 경제발전 경험 공유에 높은 관심 보유

○ **(협력 방안)** 신민지·내전·가난 동질성에 바탕,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경험 전수

– KSP 통한 발전 경험 전수 및 유무상 원조를 통해 제조 분야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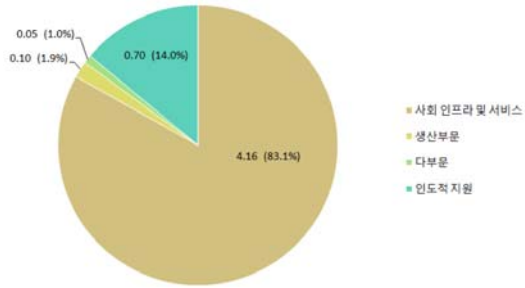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對)수단 개발원조 현황

1. 우리나라의 대(對)수단 원조 규모(연도별)



- 1990~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대(對)수단 ODA 규모는 무상원조 36백만 달러(누적) 기록 중
- 2012년 2백만 달러 규모에서 매년 상승, 2016년 7백만 달러를 넘었지만, 여전히 작은 규모
  *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는 2,246백만 달러로 대(對)수단 지원(7백만 달러)은 전체의 0.3%에 불과

2. 우리나라의 대(對)수단 주요 원조 분야(2017년 기준)



- 2017년 대(對)수단 개발원조 분야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가 83%, 인도적 지원 14%, 생산부문 1.9%, 기타 1.0%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에 집중
- 그러나 아직까지 수단은 미(美)제재 등의 사유로 중점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돼 있으나, 과도정부 안착 및 제재 해제 시, 제조업 협력 등 개발원조 확대 필요

3. 한국의 대(對)수단 개발원조 현황(2019년 6월 말, IATI 사업정보 공개 기준)

기관명	사업명	사업단계	착수일	완료일	예산 (백만 원)
KOICA	수단 주혈흡충 및 소외 열대 질환 퇴치사업 (2015~2019/600만 불)	사업착수	2015.1.1	2019.12.31	N/A
KOICA	(분쟁취약) UNDP 수단 다르푸르 평화 재건 청년자원활동 사업(2017~2019/200만 불) * 청년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착수	2017.1.1	2019.12.31	6,580
KOICA	수단 UNDP 리버나일주 태양광물펌프 설치 통한 관개개발사업(2019~2023/640만 불) * 태양광 펌프 설치, 태양광 펀드 운영	시행계획 (예산)확정	2019.4.4	2023.12.31	2,200
농촌 진흥청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운영 * 농업 생산성 추진	사업착수	2016.1.1	2020.12.31	127
한국 관세청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 * 전자통관시스템 노하우 개발 마스터플랜 제공 및 향후 관세행정 정보화 시스템 보급 연계	시행계획 (예산)확정	2019.1.1	2019.12.31	881

3 한류 전파·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친기업 환경 구축 확대

○ **(정책 수요)** 최근 5년 새 수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 문화 전파 촉진

– K-Pop으로 시작된 한류 인기가 영화, 드라마, 화장품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현지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로 육성 가능

– 수단 내 한류 확산으로 한국문화 동호회 활동 활발

* 수단 내 한국문화 동호회, Inspiration: 전문직,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수백 명 활동 중, 정기 모임 및 한국 문화행사 자발적 개최, 한국 관련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

○ **(협력 방안)** 현지인과 함께하는 보편적 문화콘텐츠로 육성

– 양국 문화교류 촉진에 더해 한류에 관심을 보이는 수단 인사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일부 한류 팬들에 국한된 문화활동의 보편적 문화콘텐츠화를 통해 한국 및 우리기업에 대한 호감도 제고 방안으로 활용

나. [B2B]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 추진

1 제조업 육성 상생협력

○ **(현지 수요)** 수단정부는 산업화 정책의 핵심으로 제조업 육성을 제시, 아울러 소비자의 제품 다양화 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제조업 발전 필요

– 자본, 기술, 설비 부족으로 인해 외국지원 및 협력 없이 제조업 발전에 한계

– 조립 가공, 적정기술 채택형 제조업 육성 수요 존재

수단 제조업 현황 및 전망

◈ 미국발 제재로 인해 서방으로부터의 투자 저조, 중국의 차관, 투자에 의존해 왔으나 석유 유전 75%가 남수단에 귀속된 후 중국으로부터 투자도 감소세

- 자본 및 기술 부족으로 산업화 추진에 한계

* 중국 : 지리자동차 공장 설립 추진했다가 중단, BYD가 GIAD와 자동차 생산 중

◈ 설탕, 시멘트, 일부 자동차 및 가전조립, 복제약 제조, 기초 플라스틱 제품 생산 정유 외 제조업 기반은 취약한 상태

◈ 공산품의 90% 내외를 수입에 의존 중인 수단 정부는 제조업 부문 외국인 투자를 원하고 있으나 대(對)수단 외국인 투자는 매년 10억 달러 내외에 불과

- 그나마 제조업보다는 농업, 광산개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민군합동 과도정부 안착 및 미(美)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여부가 제조업 발전, 투자의 관건

○ **(한국 역량)** 한국을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이룩한 기술강국으로 인식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세계 최상위국으로 인식, 한국기업으로부터 생산설비, 중간재 및 원부자재, 플랜트엔지니어링 등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 다수 포착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년 5년 연속 1위

– 수단 기업인 다수가 한국을 제조업 중심 산업화로 경제발전 이룩한 국가로 인식

– 과거 대우그룹의 대(對)수단 투자, 수단 산업화를 이끌었던 경험, 기억도 유리하게 작용

○ **(협력 체계)** 상생협력형 수단의 제조업 육성정책 지원 및 그 과정에서 시장 확대

– 중간재, 설비, 엔지니어링 공급을 통한 제조업 발전 지원 및 시장성장 추구

제조업 분야 한-수단 상생협력 사례

현지 수요에 착안한 제조역량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 추구

◈ **자동차 조립 생산**

· **(참여주체)** 한국 : 현대·기아차, 자동차 조립라인 설치전문 2개사, 부품업체 다수
수단 : 공기업 A, 대기업 B사(자동차 판매 및 조립생산 대기업)

· **(협력내용)** 기술, 설비 및 부품 제공(수출)을 통해 현지 자동차 조립 생산 증가세, 자동차 및 부품 시장 성장으로 현지 시장 및 고용확대에 기여

◈ **가전 조립 생산**

· **(참여주체)** 한국 : LG전자/수단 : 대기업 A사(가전 수입 및 조립생산 대기업)

· **(협력내용)** 기술, 설비 및 부품 제공(수출)을 통해 현지 가전(냉장고, TV) 생산, 가전 및 부품 시장 성장으로 현지 시장 및 고용 확대에 기여

◈ **의료 진단기기 생산 협력**

· **(참여주체)** 한국 : RDT(신속진단키트) 생산 A사, 생산설비 공급 B사
수단 : 의료기기 R&D 전문 공기업 C사

· **(협력내용)** A사가 중간재, B사가 생산설비 공급 및 C사가 완제품 생산 현지 공급

◈ **의약품 합작 생산 및 공급**

· **(참여주체)** 한국 : 포스코대우, 제약사 A/수단 : 보건전문 기업 B

· **(협력내용)** 포스코대우-A, B 사가 합작법인 설립, 한국, 인도 등지에서 의약품 원료 수입, 현지 복제약 생산 통해 내수 공급(수단 내 점유율 2위)

◈ **기타**

· 의료기기, 플라스틱재 등 생산기업 다수가 한국산 생산설비 사용 중

2 광산업(mining) 현대화 협력

○ **(현지 수요)** 단기간 내 수출산업화에 유리한 광산업이 국내외 투자 선도

– 극심한 외화 부족에 시달려온 수단 정부, 단기간 내 개발 및 수출 가능한 금 등 광산업 개발에 역점, 금은 매년 수단 전체 수출의 30% 내외 차지

* 수단 금 생산은 2017년 105톤으로 100톤 돌파, 남아공,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3위 생산량 기록, 특히 수단 금광은 노천광으로 개발을 위한 기간,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광물 탐사 및 채굴, 운반 장비, 제련용 화학약품 수요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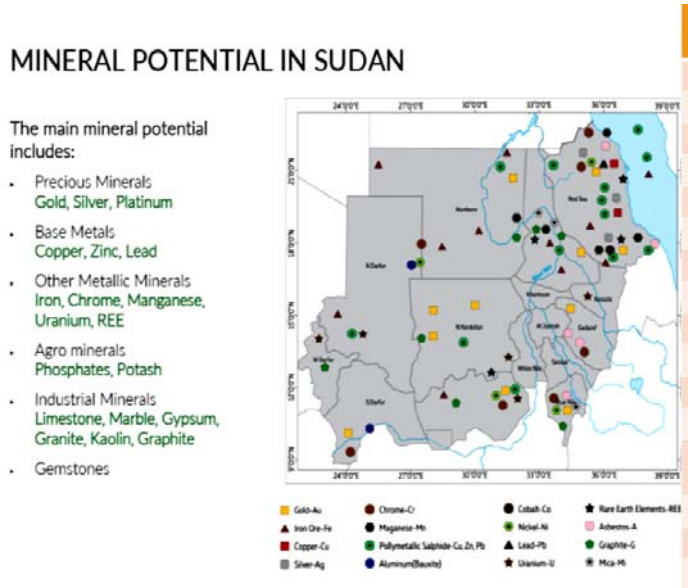
– 2014년 10여 개에 불과했던 기업형 금생산 회사가 2018년 36개사로 증가. 소규모 회사까지 합치면 전체 금 생산 관련기업은 370여 개 사, 이 중 102개 사가 외국기업

* 주요 금광 개발사 : Ariab Mining, delgo Minerals Co., Koch of Russia, Golden United Group, Hagagia(Poly Red Sea) Gold Mining Co. Ltd., Huakan Mining Co. of China, Managem Group of Morocco ,Rida Mining Co., Sahari Company for Gold Mining, and Tahi International Metal Mining Corp. of the British Virgin Islands

– 그러나 미(美) 제재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투자 정체, 정식 수출의 1.5배 정도로 알려진 밀수 성행 등의 사유로 광산업은 여전히 전통방식의 영세개발사에 의존 중

– 2019년 9월 출범한 민군합동 과도정부는 금 생산 및 수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강화 계획 마련 중, 과도정부 안착 시 광산업 현대화 진전 기대

수단 내 광산 개발 동향(2017년 12월 기준)



Serial No.	Mineral	Number of Licenses	Number Of Company
1	Gold	49	36
2	Chromite	117	46
3	Gypsum	30	21
4	Salt	37	34
5	Iron	8	6
6	Marble	26	7
7	Manganese	14	6
8	Mica	11	6
9	Copper	2	2
10	Talc	2	2
11	Feldspar	6	3
12	Quartz	5	4
13	White Sand	4	2
14	Kaolin	1	1
15	Bentonite	1	1
16	Fluorite	2	1

자료 : 수단 Ministry of Minerals

○ **(한국 역량)** 광산 장비, 제련용 화학제품 경쟁력 보유

– 광산 장비 및 제련용 화학약품 분야에서 미·중·일, 유럽기업과 경쟁

– 광산장비 및 부분품은 자동차 및 부분품과 함께 우리기업의 대(對)수단 양대 수출품목으로, 수단 광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최근 수출 중가세 뚜렷

* 우리나라의 대(對)수단 건설광산기계 수출규모는 연간 2천 5백만 달러 내외로 최근 수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 주요 수출품목은 드릴링 장비, 로더, 굴삭기, 운반 장비 및 부분품, 제련용 화학제품 등

○ **(협력 체계)** 수단의 광산업 현대화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 추구

– 광산장비 및 화학제품류 공급을 통해 수단 광산업 현대화, 생산성 증대에 기여

3 보건의료 현대화 협력

○ **(현지 수요)** 병원 및 의료장비 현대화, 의약품 공급 확대 필요

– 국가 전체 외화 부족으로 인해 생필품으로 간주 돼 온 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 원료까지 수입량 및 가격을 정부(보건부)가 통제, 만성적인 공급 부족 현상 지속

– 인구 및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증가로 노화된 병원 설비, 의료장비 교체 수요 증가세

* 2016년 기준, 수단 국민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U$ 142에 불과, 이는 10년 전에 비해 4배 증가한 것이나 여전히 낮은 상태, 2026년에는 $226에 달할 것으로 예측(WHO)

인구 지속 증가, 2011~2012년 병원 및 의과대 신설로 보건의료 수요 증가 세

〈수단 의료비 지출규모 변화〉

(단위 : 십억 달러, 달러, %)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의료비지출 총액	5.2	5.6	5.6	5.6	6.0	6.5
1인당 의료비지출액	136	142	137	134	142	150
GDP대비 의료비지출 비중	5.4	4.7	3.8	3.3	2.9	2.6

주 : f=전망치 / 자료 : WHO, BMI, 2019년 2월 추출

〈수단 병의원 현황(2016 기준)〉

	병원수	침상수
공공병원(개)	516	30,308
민간병원(개)	257	1,340
의원(개)	5,391	N/A

자료 : Sud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9년 2월 추출

참고 : 2016년 기준, 수단 내 환자 수는 11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 입원환자수는 26,546명으로 전체 침상의 88% 점유

〈수단 인구증가 동향〉

(단위 : 천 명, %)

	2000	2005	2010	2015e	2020f	2025f
전체 인구	27,250	30,911	34,385	38,647	43,541	48,999
연평균 인구증가율	2.4	2.4	2.4	2.4	2.4	2.4
평균 수명(남자)	57	59	61	63	64	65
평균 수명(여자)	60	62	64	66	67	68

주 : f=전망치 / 자료 : World Bank, UN, BMI, 2019년 2월 추출

수단 내 질병 분포(2016년 기준)

- 취약한 위생 상태, 지나친 당분 섭취로 인해 말라리아, 당뇨가 최대 질환

순위	병 명	환자수	비중
1	Malaria	974,571	9%
2	Diabetes Mellitus	716,654	6%
3	Pneumonia	724,825	6%
4	Diarrhoea&Gastroenteritis	530,302	5%
5	Acute Tonsillitis	576,798	5%
6	Other Disorders of Urinary Tract	323,517	3%
7	Injuries Involving Multiple Body Regions	313,930	3%
8	M. C. for O. Con. Pred. R. to Pregnancy	284,351	3%
9	Obs&gyna	242,317	3%
10	Diseases for Respiratory System	229,463	2%
소 계		4,916,728	43%
기 타		6,566,588	57%
합 계		11,483,316	100%

주 : f=전망치 / 자료 : World Bank, UN, BMI, 2019년 2월 추출

○ **(한국 역량)** 중국, EU산 등과 비교해서 비용대비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역량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현지 시장 평가 확산 중

– 품질 안정성이 중시되는 보건의료 분야 제품 특성상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 뚜렷, 구형기기 교체 수요와 맞물리며 한국산 선호 증가세

* 한국산 선호 의료분야 : 의약품, 영상진단기기(X-ray, MRI 등), 혈당 진단기, 재활기구 등

– 포스코대우-신풍-현지기업 합작 제약사인 GMC, 수단 제약시장 점유율 2위 기록 중, 국내 A사는 수단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RDT 생산공장 설립 지원 및 중간재를 공급 중으로 한-수단 기업 차원 협력 사례도 기 존재

– 질병 퇴치 무상원조 프로그램 진행으로 정부 간 협력 경험도 기 확보

* KOICA, 건강관리협회 주관, 수단 주혈흡충 및 소외열대질환 퇴치사업 추진(2015~2019, 6백만 달러)

○ **(협력 체계)** ODA, CSR 활동과 연계한 보건의료 분야 민관합동 상생협력 추진

– 의약품 공급 확대, 의료기기 및 병원 설비 현대화 수요 구체적 파악 및 전파를 통해 기업 간 협력 확대, 아국기업의 중간재, 설비공급 및 CSR 활동 지원

– 공공 비중이 큰 수단 보건의료 환경을 감안, ODA 등 공공부문과 연계 필수

* 수단은 의약품/의료기기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 병원 중 정부 운영 공공병원 비중이 65%

–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인허가 취득 지원 필요, 수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는 NMPB(National Medicines&Poision Board)가 수행하며, 제품 및 생산공장 등록을 마쳐야 판매 가능(한국은 2018년 생산공장 실사 면제국으로 지정)

다. [B2G] 정부, 공기업 주도 산업화 상생협력 강화

1 농·축산업 현대화 협력 강화

○ **(현지 수요)** 수단은 아랍권 최대 농지 보유, 현대화 통한 수출산업화에 역점

– 세계 16위 면적의(186만 ㎢) 국토 전체를 나일강이 관통, 나일강 주변을 중심으로 아랍권 최대의 비옥한 경작농지 보유(아랍권 저체의 30%), 아랍 주요국(사우디, UAE, 쿠웨이트) 들이 대규모 농지에 투자하며, 아랍권 식량창고로 불림

– 그러나 2000~2011년 중 석유개발에 치중, 농축산업을 등한시한 결과 관개시설 등 인프라 노후화, 농축산업 전체 경쟁력, 생산성 급감한 상태로 현대화 절실

* 산동물 및 참깨 등 농·축산품은 금과 함께 여전히 수단 2대 수출품 지위 차지하고 있으나 밀, 쌀, 설탕 등 주요 작물은 자체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중

– 농기계 및 장비, 비료, 사료 및 첨가제 수요 증가 및 농업 인프라 개선, 기술 도입 희망

수단 농축산업 현황 및 과제

◈ 아랍권 최대 농지, 나일강이 관통하는 비옥한 농토 보유, 자국 입장에서도 농축산업은 금에 이은 2대 수출품이자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
- 아랍권 경작 면적 비중은 수단이 30%, 모로코가 15%, 알제리, 시리아, 이라크, 튀니지, 사우디 순
- 청나일강은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하여 수단을 관통해 이집트로 흐르고, 백나일강은 우간다에서 발원하여 남수단 거쳐 수단에서 청나일과 합류
- 1.1억 마리에 달하는 가축 사육, 주변 아랍국으로 소, 양, 염소, 낙타 등 수출

◈ 반면 2011년 남수단 독립 전까지 석유개발에 치중, 농·축산업 인프라 낙후 및 현대화 절실
- 수단 내 경작 가능 면적은 2억 acre 정도로 추산, 이중 실제 경작면적은 4,100만 acre로 전체 경작 가능 면적의 20%에 불과, 경작 면적 중 90%는 천수답, 수리답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 반면 농산물 전체 생산의 50% 정도는 이 수리답에서 생산, 관개시설 확충 및 복구 필요
- GDP, 수출액 면에서 대표산업인 농·축산업 현대화, 수출산업화 절실

* 수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2019)의 핵심목표 중 하나

○ **(한국 역량)** 농업 기술 및 장비 우수, 식량 수입국에서 자립국으로 전환 경험 보유

– 한국산 농기계 및 장비, 사료 및 첨가제 수단시장에서 일정 인지도 보유

* 한국 트랙터, 방제장비, 비료, 사료 및 첨가제, 동물 의약품 등 대(對)수단 수출 중이거나 수출 추진 중

– 기술개발 및 보급, 인프라 개선을 통한 식량자립 경험 확산 바람직

○ **(협력 체계)** 민관협업, 수단 정부 및 대기업, 공기업과 협력 추진

– KOPIA(한국해외농업개발센터) 를 활용한 정부 차원의 농업기술 전수 경험 보유, 농축산 기업과 협력한 수단 농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7개국에 KOPIA 센터 운영 중(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가나 등)

– 수단 농업부 및 관련 공기업, 대기업들과 협력한 농축산지원 프로그램 마련

2 건설, 인프라 개발 협력

○ **(현지 수요)** 최근까지 지속된 30년 군부독재, 경제·외환위기로 SOC 인프라 낙후

– 특히 남수단 독립에 따른 보유 유전의 75% 상실 후 건설, SOC 인프라 분야 국내외 투자 급감, 공항, 항만, 도로, 철도 시설 현대화 시급

* 전력, 통신, 수자원 인프라 낙후는 직접적인 생활 불편 초래 및 산업발전, 국내외 산업투자 저해

– 미(美) 제재와 함께 SOC 인프라 부족은 국내외 연관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인프라 개발은 2019년 9월 출범한 민군합동 과도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

– SOC 인프라 개발은 제조, 농축산업 육성과 함께 수단 산업화의 핵심 목표

* 수단정부는 신공항 건설, 철도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신설 등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나 국내외 금융조달 애로로 인해 추진지연 반복

○ **(시장 여건)** 과도정부 안착, 미(美)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여부가 인프라 개발의 관건

– 2019년 9월 출범한 민군합동 과도정부, 30년 독재 잔재 척결 및 과도정부 안착 성공 시 민주화, 미(美) 제재 해제 확대로 연결, 건설 인프라 개발 가속화 가능

– 현재는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1993~현재)으로 인해 서방,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 자금지원 및 투자, 금융 거래에 제약 존재, 제재가 해제되면 국제사회로부터 차관, 부채 탕감이 가능해지며 국내외 직접투자도 급증 예상

* 과도정부 출범 후 국제사회의 美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지지하는 논의 활성화 조짐

○ **(한국 역량)** 인근 중동 및 수단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경험 활용 가능

– 중동권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에서 풍부한 경험, 수단 내 대우그룹의 호텔 건설 및 운영, 한국종합기술의 신공항 감리프로젝트 수행 등 경험 보유

수단 신공항 건설 감리 프로젝트 수주 사례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최초의 국내기업 공항건설 설계/감리 용역 수주(2015년 4월)
- 발주처 : Sudan Airport Holdings Company LTD(SAHL)
- 프로젝트 규모 및 재원 : 2,040만 유로(수단정부)
- 수주기업 : 한국종합기술, 근정(종합건축사무소) JV

○ **(협력 방안)** 수단 정국 상황을 주시하며,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추진

–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이 유효한 현시점에서는 대(對)수단 투자, 파이낸싱에 제약, 단 과도정부 출범 및 30년 독재 종식에 따라 아랍, 중국 등지로부터 차관 프로젝트 증가, 나아가 미(美) 제재 해제 논의 활성화 및 해제 가능성에 주목 필요

– 과도정부 안착 및 미(美) 제재 해제 가시화 시 민관협력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확대 추진, KOTRA-KIND(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과 협력 강화

* KOTRA-KIND, 해외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 협력 MOU체결(2018년 8월)

라. [국민] 한류·문화교류를 매개로 인적교류 확대 추진

○ **(교류 동향)** 1990년대 말 대우그룹 매각, 수단 경제위기 지속으로 교류 감소

– 대우그룹 매각 이후 발생한 수단 정부의 이슬람 근본주의 바탕의 신교일치 강화로 선교사 축출, 뒤잉은 경제위기로 인해 2000년대 들어 수단 진출 우리 기업 및 체류 한인 수 감소, 한인의 대(對)수단 관심 및 방문도 저조한 상태

* 1980~1990년대 대우그룹 투자 시 수단 체류 한인 숫자는 3백여 명, 2019년 40명 내외로 감소

– 반면, 한국경제 성장 및 한류 확산에 힘입어 수단인의 한국 방문 및 한국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현지 수요)** 현지 한류 팬층 증가 및 관심 분야 다양화

– 중상류층,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한류 팬 증가, 중장년층도 과거 대우그룹의 수단 산업화 기여를 기억하며 한국에 대해 호감 간직

– K-Pop으로 시작된 한류가 드라마 및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

수단내 한류문화 커뮤니티 'Inspiration' 활동

- 대학생, 젊은 전문직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한 한류 커뮤니티로 자발적 생성 및 운영
- 회원수 2백여 명으로 지속 증가세, 정기 모임 및 자체적인 한국 관련 퀴즈대회, K-Pop 공연, 영화제, 오락프로그램 재연 등 활발한 활동 전개
- 한국 공관, KOTRA 등이 주관하는 한국 관련 행사에 자발적 참여 및 지원

○ **(확대 방안)** 한류 팬층으로 시작된 한국 문화 관심 확산, 다양화 추구

– 현지인의 자발적 한국관련 활동 지원, 친한(親韓)인사(한류동호회 리더그룹 등)의 방한 초청(문화행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과 연계) 및 지속적 협력 위한 체계 구축

– 한국정부 및 기업 차원의 양국 간 협력 프로그램 수행 시 한국에 관심 높은 수단 인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

– 단순 인적교류를 넘어 경제협력, 문화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상생협력 생태계 활성화

Ⅲ. 향후 對수단 K패키지 실행체계(안)

1 수단 정국 상황 주시 및 상황 변화에 대비한 협력방안 마련

○ 2019년 4월 쿠데타, 9월 과도정부 출범 등 정국 상황 급변 중으로 상황 주시 필요

– 아직 과도정부 출범 초기임을 고려해 안정화 여부 및 속도에 주목하며 대응

– 민군합동 과도정부의 성공적 출범에도 불구하고 39개월 과도정부 기간 중 정국 변화 가능성 상존, 군부 내, 야권 내, 군부–지방 간, 지방세력과의 갈등 극복 필요

* 9월 출범 과도정부, UN 및 WB 출신의 총리, 재무장관 임명, 수단 최초 여성 외무장관 등 18명 각료 중 4명의 여성장관 임명, 주변국과 협력 모색하며 민주화 추진 의지 표명, 39개월 과도체제 후 선거 실시 예정

○ 경기 급반등 및 단기간 내 시장 상황 개선에 대비한 상생협력 기반 선점전략 마련

– 과도정부 안착 및 민주화 진전이 미국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연결될 경우 수단 정국 및 경제 상황 급발전 예상

– 시장 상황의 급격한 개선에 대비, 상생협력 기반의 선점 전략 마련 및 파트너링 활성화 추진 (정부 간, 민간 및 민관협력 파트너 발굴 및 교류 확대)

* 미(美)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여부는 수단 경제발전 최대이슈로 신 과도정부는 아랍, EU, 미국을 상대로 제재 해제 요구 중

2 여건 성숙 시 현지 KOTRA를 KBP(Korea Business Plaza) 화(化)하여 상시 협업

○ 수단은 규모, 인적, 지리적 전략 가치 면에서 중동 아프리카 잇는 대표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 충분, 특히 42백만 명의 젊은 인구구조,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종교(이슬람) 및 윤리의식 갖춘 인적 구성은 수단의 최대 강점

– 민주화, 제재 해제와 맞물릴 경우 중동~아프리카 대표시장으로 급성장 가능

○ 여건 성숙 시 KOTRA를 KBP화 하여 관련 기관, 기업 간 협업 전개

– 중장기적으로 물리적 Shared Service Center 구축을 통해 현지 낙후된 인프라 요인을 극복하는 동시에 한–수단 경협 확산의 상질물로 활용

3 [향후 과제] KOTRA 차원 자료에 더해 정부 차원의 K패키지 방안 마련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임성주**	관장	카르툼무역관	+249-912-736-349	sungju@kotra.or.kr

KOTRA자료 20-108

2020 국별 진출전략 **수단**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54-5(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